예속과 굴종, 치욕의 력사

평 양 출 판 사

주체112(2023)년

책을 내면서

지구상에는 200여개에 달하는 나라와 지역들이 있다. 이렇듯 많은 나라와 지역들이 존재하고있지만 세계의 그 어디를 둘러보아도 괴뢰지역과 같이 수십년세월 외세에게 자주권과 존엄을 여지없이 짓밟히고 인민들이 불행과 고통에 몸부림치고있는 곳은 없다.

미국이 괴뢰지역에 침략의 군화발을 들이민 때로부터 78년의 세월이 흘렀다. 강점 첫날부터 미국은 괴뢰들에게 예속과 굴종의 올가미를 단단히 옭아매놓았으며 인민들을 대상으로 살륙과 략탈 등 치떨리는 범죄행위들을 감행하였다.

지난 세기 50년대에 우리 민족에게 무서운 전쟁의 참화를 들씌운 미국은 전후에는 이른바 《호상방위조약》이라는것을 괴뢰들에게 강요하였다. 이때로부터 미국은 《동맹》이라는 미명하에 70년동안 각종 핵전략자산, 침략전쟁수단들을 끌어들여 형형색색의 전쟁연습소동들을 매일과 같이 벌려놓았으며 이로 말미암아 조선반도정세는 지속적인 불안정, 항시적인 전쟁위기속에 있다.

《동맹》이라는 간판에 짓눌려 실권이 없는 《정권》, 통수권이 없는 《군대》, 제것이 없는 《경제》와

민족적정통성이 사라진 《문화》속에서 외세의 횡포아래 식민지노예로 억울하게 살아야 하는것이 괴뢰지역 인민들의 비참한 처지이다.

전대미문의 예속과 굴종의 력사, 불행과 고통의 력사가 바로 《한미동맹》의 력사이다.

이 도서에서는 《한미동맹》 70년의 진면모, 외곡할수도 외면할수도 없는 치욕의 그 력사를 세계앞에 날날이 폭로하려고 한다.

차 례

예속의 첫 올가미 …… (4)

비굴한 주구, 오만한 상전 …… (14)

침략적인 조약, 굴종의 맹약—《호상방위조약》 …… (20)

살인마들의 소굴, 침략의 전초기지—
미군기지 …… (24)

미국의 대포밥—괴뢰군 …… (31)

세계에서 가장 위험천만한 핵전쟁발원지로 …… (36)

현대판노예문서—《행정협정》 …… (41)

식민지예속경제, 범람하는 양키문화 …… (48)

침략자, 강점자에 의한 강토의 황폐화 …… (56)

고혈을 빨아먹는 흡혈귀무리 …… (65)

더욱 추악하게 《진화》하는 《동맹》 …… (72)

예속의 첫 올가미

지난 70여년세월이 보여주는것처럼 《한》미관계는 상전과 주구사이의 철저한 종속관계, 지배와 예속, 굴종의 관계이다.

1945년 9월 조선반도의 남쪽땅에 침략의 군화발을 내디딘 미제는 태평양방면 륙군총사령관 맥아더의 이름으로 포고 제1호를 발표하였다.

《미국 태평양방면 륙군총사령관인 본관에 부여된 권한에 의하여 본관은 북위 38°선이남의 조선과 조선주민에 대하여 군정을 펴고 다음과 같은 점령조건을 발표한다.

제1조 북위 38°선이남의 조선령토와 조선인민에 대한 통치의 모든 권한은 당분간 본관의 권한하에 시행된다.

…

제3조 주민은 본관 및 본관의 권한하에서 발포한 명령에 즉각 복종하여야 한다. 점령군에 대한 모든 반항행위 또는 공공안녕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있을것이다.

…

제5조 군정기간에 있어서는 영어를 모든 목적에 사용하는 공용어로 한다. 영어원문과 조선어 또는 일본어

원문간에 해석 또는 정의가 불명하거나 부동할 때는 영어원문을 기본으로 한다.》

이 포고문은 《해방자》가 아닌 강점자로 침략의 첫발을 내디딘 미국의 오만성과 강도적본성을 적라라하게 드러내보이고있다.

미강점군사령관은 강점 첫 시기부터 행정, 립법, 사법 등 권력기관전체를 통제하는 권한을 장악하였으며 미군정기간 모든 《법령》은 미강점군사령관의 명령에 의해 만들어졌다.

미국은 우선 일제식민지통치시기의 《법령》들과 총독부의 사법제도를 손질하여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이것은 리승만괴뢰정부가 조작될 때까지 3년동안 존속되였다.

미제는 군정기간 일제시기의 모든 법령이 효력을 가진다는것을 선포하였을뿐 아니라 《정당등록법》(《군정법령》 제55호), 《정당, 사회단체 등 시위행렬 및 집회허가에 관한 건》(1947년 군정청 경무부장 통첩), 《군정위반에 관한 법령》(《군정법령》 제72호) 등 새로운 파쑈악법들을 수많이 조작하였으며 인민들의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시위 등 모든 민주주의적권리와 자유를 완전히 박탈하였다. 미군정은 《미군정법령》을 휘두르면서 인민들의 피땀으로 이루어진 모든 재산을 《귀속재산》이라는 명목밑에 모조리 략탈하였으며 군정통치를 반대하는 인민들의 투쟁을 야수적으로 탄압하였다. 미제는 1946년 8월 화순탄광로동자들의 투쟁과 하의도농민폭동, 로동자들의 9월총파업과 10월인민항쟁, 1948년 2.7

구국투쟁을 비롯하여 민족의 자주권을 위한 인민들의 투쟁을 무력으로 탄압하고 애국적인민들을 각종 악법에 걸어 검거, 투옥, 학살하였다.

미국은 또한 저들의 식민지통치실현을 위한 수단으로 괴뢰경찰조직을 만들어놓았다.

미국제군용차량과 일본제군용소총, 대검 및 기관총으로 무장하고 독자적인 전화와 무선통신망을 갖춘 괴뢰경찰은 애국적민주세력의 활동을 가차없이 탄압하고 민족적이고 민주주의적인 모든 요소들을 짓뭉개버렸다.

미국은 또한 군정통치기간 미군의 지휘를 받는 괴뢰군을 조직하였다.

1945년 11월 《군정법령》 제28호에 따라 《국방경비대》창설을 위한 첫번째 단계로서 《국방사령부》라는것이 설치되였으며 이후 1946년 1월 《국방경비대》가 조직되였다. 미군정의 지휘밑에 창설된 《국방경비대》의 초대사령관은 미군중좌였으며 《국방경비대》에는 일본관동군과 만주군출신장교들이 불을 본 부나비처럼 모여들었다. 《국방경비대》는 명실상부한 미국의 고용병이였으며 괴뢰군의 모체였다.

미국은 괴뢰정부를 조작함으로써 지배와 예속의 올가미를 더욱 바싹 조이였다.

미제는 1946년 12월에 이른바 《과도립법의원》을 조작하고 다음해 6월에는 《과도정부》를 꾸며냈다. 괴뢰정권조작을 위한 준비과정에 미군정은 우로부터 밑에 이르는 식민지통치체계의 전반에 친일파, 민족반역자들등 저들의 앞잡이들과 주구들을 들여앉히는것을 주되는

목표로 내세웠다. 이러한 준비끝에 미국은 1948년 5월에 망국적인 단독선거를 실시한데 이어 그해 8월 리승만역도를 우두머리로 하는 식민지괴뢰정부를 조작하였다.

미국이 괴뢰정부와 벌려놓은 그 무슨 《협정》체결놀음은 사실상 식민지괴뢰정권의 진면모를 감추고 저들의 지배에 《합법성》을 부각시키기 위한것이였다.

1948년 8월 24일 리승만역도와 미강점군사령관 하지사이에 체결된 《과도기에 시행될 잠정적군사안전에 관한 행정협정》은 불과 5개 조밖에 되지 않았지만 괴뢰군에 대한 미군사령관의 지휘권을 명시하고 미군이 항구, 철도, 비행장 등 중요시설에 대한 통제권을 계속 보유하는것을 문서로써 확약한 예속문서였다. 이 《협정》은 제5조에서 《협정》의 내용을 담은 영어와 조선어본문이 동등한 효력이 있으나 서로 어긋날 때에는 영어본문에 기준한다고 명시함으로써 식민지주구에 불과한 괴뢰들의 처지를 그대로 보여주었다. 이와 같은 조항은 그후에 체결된 《<대한민국>과 통합사령부간의 경제조정에 관한 협정》, 《한미행정협정》을 비롯한 여러 《협정》들에도 그대로 들어갔다.

《과도기에 시행될 잠정적군사안전에 관한 행정협정》을 체결한 후 며칠이 지나 미국대통령의 특사 무쵸가 리승만역도에게 찾아와 재산 및 재정이양에 관한 《회담》을 요구하면서 《한미간의 재산 및 재정이양에 관한 협정》안을 제시하였다. 미국이 강요한 이 《협정》안에는 괴뢰정부가 《미군정청의 일체의 현행법률, 법령 및 규칙을 전적으로 계속 시행할 의무》(제11조), 《귀속

사업체에 대하여 미군정이 시행한 처리를 시행해야 할》 괴뢰측의 의무(제5조), 미군정기간 미국인들이 향유한 《권리 및 특권을 존중하고 확인할》 괴뢰측의 의무, 《동산 또는 부동산, 유형 또는 무형을 막론하고 미국이 관심을 가진 재산 및 그 첨부물의 취득》과 《그 소유권이전에 관한 미국의 권리》(제9조 2항) 등 력사에 전례가 없는 종속적이며 불평등한 조항들이 포함되여있었다. 특히 제9조 2항의 내용은 미국의 지속적인 지배와 착취, 수탈을 합법화한것이였다.

미강점군사령관 하지도 리승만역도를 찾아가 《협정》의 무수정체결을 강요하였다. 그때 리승만역도는 괴뢰정부의 《재무장관》과 《기획처장》을 불러다놓고 이렇게 말하였다고 한다.

《미국측 제안대로 전부 동의하라. …

미국의 힘으로 <정부>가 세워졌고 앞으로도 미국의 힘에 의하여 유지될 우리 <정부>가 미국사람들의 비위를 거스르면서 그들의 그만한 요구를 거부할수 있겠는가. …

사실 <국회>에서 말썽이 문제이니 미국의 요구대로 속히 동의하여 협정을 체결하고 <국회>통과공작에 힘쓰기 바란다.》

민족의 자주권이나 존엄 같은것은 꼬물만큼도 없는 리승만역도에게 있어서 미국의 요구와 리익은 곧 그의 모든 사고와 행동을 규제하는 지침이였고 미국의 지시와 명령은 곧 괴뢰정권의 《정책》, 어길수 없는 행동준칙이였다.

하여 1948년 9월 11일 미국과 괴뢰들사이에 《한미간의 재산 및 재정이양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였다. 미국은 이 《협정》 11조에 괴뢰정권이 《미군정청이 실시해온 모든 현행법률, 법령 및 규칙을 전적으로 계속 시행할 의무를 지니고있다.》고 명문화하여 저들의 식민지통치를 《합법화》하고 괴뢰당국이 미국의 정치적지배의 도구라는것을 공공연히 규정하였다.

식민지괴뢰정부를 조작한 미국은 우선 《원조》를 미끼로 하여 괴뢰들을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완전히 예속시키였다.

미국과 괴뢰들사이에 1950년 1월에 체결된 《호상방위원조협정》의 제1조 제1항에는 미국이 제공하는 《원조》가 《1949년의 <호상방위원조법>의 각 규정, 조건, 약정 및 종료규정과 금후 시행될 기타 미국법령에 의거하여 진행된다.》고 규제되였다. 미국국내법인 《호상방위원조법》에는 《미국의 원조를 받는 모든 나라들은 미국의 지휘감독밑에서 군사력을 강화하고 미국과 체결한 쌍무적 및 다무적<조약>과 <협정>에 의하여 지게되는 군사적의무를 철저히 수행하는 조건에서만 원조를 제공받는다.》고 되여있으며 《원조》를 받는 나라들이 《일체 공산권과의 무역을 하지 못하며 만일 이 조항을 어긴 경우에는 원조를 중단한다.》고 규정되여있다. 미국은 《호상방위원조법》만으로도 부족하여 1950년 2월에는 《대한원조법》이라는 국내법을 조작하였다. 이 《법》에는 《공산당 또는 현재 북조선정부를 지지하고있는 정당의 당원 한사람이상 참가하는 련립내각이 성립되

는 경우 <대한민국>에 대한 <원조>를 중지한다.》고 명시되여있었다. 이처럼 미국은 《호상방위원조협정》과 미국국내법인 《호상방위원조법》, 《대한원조법》에 기초하여 《원조》를 공간으로 괴뢰들의 내정에 로골적으로 간섭하여 괴뢰국회와 괴뢰정부가 저들의 정치적지배의 도구로 운영되도록 통제하였다.

미국은 또한 미국대사관을 통해 괴뢰정부에 대한 지배를 《합법적》으로 감행할수 있도록 《법》적으로 규제하는 놀음도 벌렸다. 1949년에 괴뢰정부를 《승인》하는 놀음을 벌린 미국은 괴뢰들과 《대사관계》를 설정하고 무쵸를 초대대사로 임명하였다. 이때로부터 미국대사관은 미국의 식민지통치를 지휘하는 현지기구로 되였으며 미국대사는 정치적지배의 최고실권자로 되였다.

미국대사가 차지하는 지위가 어느 정도인가 하는것을 보여주는 생동한 실례가 있다.

지난 2015년 3월 서울에서 한사람이 미국의 지배와 북침합동군사연습의 중지를 요구하면서 서울주재 미국대사를 징벌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사건당시 중동행각중이던 박근혜괴뢰역도는 이 사건을 《<한미동맹>에 대한 공격》으로 단언하면서 《이번 사건이 <한미동맹>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도록 미국정부와 긴밀히 협조해나갈것》이라고 떠들었다. 또한 돌아와서는 려장을 풀기도 전에 미국대사를 찾아가 《자기도 칼침을 맞은적이 있다.》느니, 《신통히 같은 상처를 입고 같은 병원에 입원하였다.》느니 하면서 《한미관계가 더욱 가까와지는 계기가 마련되였다.》고 온갖 교태를 다 부리였다.

괴뢰국무총리를 비롯한 우두머리들은 물론 미국의 빵부스레기를 얻어먹고 사는 별의별 어중이떠중이들도 줄지어 병원에 찾아가 《사과》니, 《쾌유》니 하면서 꽃을 전달한다, 위문품을 보낸다, 치료비를 부담한다고 하는 등 아첨경쟁에 열을 올리며 굽신거렸는가 하면 친미극우보수떨거지들은 성조기를 들고 거리에 밀려나와 그 무슨 《완쾌를 기원》하는 기도회를 열고 춤까지 추는 해괴망측한 추태까지 벌렸다. 지어 박근혜역도의 녀동생 남편이라는자는 미국대사가 입원한 병원앞에 꿇어앉아 미국상전에게 용서를 비는 《석고대죄단식》놀음까지 벌려놓는 희비극을 연출하였다.

《대통령》으로부터 시작하여 그 수하졸개들에 이르기까지 한모습으로 일개 대사에 불과한자를 신주모시듯 하는 광경은 미국대사가 괴뢰정부를 막후에서 조종하는 식민지총독의 지위에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미국은 또한 괴뢰정부의 각 부, 국, 처와 그 산하기관들에 고문을 빠짐없이 배치하여 괴뢰들의 중요한 《정책》작성과 그 집행을 지휘감독하게 하였다. 1948년 12월에 체결된 《경제원조협정》, 1950년 1월에 체결된 《호상방위원조협정》과 《미군사고문단설치에 관한 협정》 등은 미국이 정치, 경제, 군사, 문화의 모든 분야에 저들의 고문을 들여앉히고 이 고문들이 괴뢰정권을 직접 통제할수 있게 규정하였다.

1904년 8월 일제는 조선봉건왕조에 《한일협정서》라는 침략적조약을 강요하면서 조선봉건정부에 《재정고문》, 《외교고문》, 《경찰고문》, 《군부고문》 등

을 들여앉히였다. 이로써 조선에 대한 일제의 악명높은 《고문정치》가 실시되였으며 조선봉건정부는 정책수행에서 독자성을 잃고 독립국가로서의 기능을 수행할수 없게 되였다.

일제식민지통치의 서막을 연 일제의 《고문정치》와 똑같이 미국고문들은 괴뢰정부의 모든 기관들에 틀고앉아 《원조》물자와 자금의 배정 및 괴뢰정부의 예산편성과 그 집행, 자금의 대출과 기업체의 관리운영에 이르기까지 모든 경영활동을 틀어쥐고 지휘통제하였다. 특히 미군사고문들은 괴뢰군의 각 부대에 들어가 조직편성, 훈련과 작전, 내부생활과 함께 《국방예산》의 편성과 그 지출 그리고 모든 군사행정일정을 지휘감독하였다. 《경제원조협정》에 의해 괴뢰정부의 《문교부》와 《공보부》에 들어간 미국고문들은 과학, 교육, 문화기관들을 정치적으로 지배하였다. 일제의 《고문정치》를 그대로 답습한 미국의 《고문정치》야말로 미국의 식민지라는 부정할수 없는 증거로 된다.

식민지통치의 초시기부터 미국은 괴뢰들과 맺은 《협정》을 통해 미국대사관 성원들과 미군사고문, 개별적인 미국인들까지도 온갖 《특전》과 《특혜》를 행사하면서 주인행세를 하도록 했다. 《경제원조협정》에서 미국은 《<한국정부>는 미국원조대표 및 그 사절단직원에게 특전을 부여》(제3조 2항)하며 《원조대표의 임무수행상 필요한 협조를 제공》(제3조 3항)할것이라는 의무를 괴뢰들에게 지워놓았다. 또한 군사고문들에게도 미국대사관 및 해당 계급의 관원과 같은 특권과 면제를 주고 그들

을 미국대사관 성원으로 인정할 의무(《미군사고문단설치에 관한 협정》 제4조)를 지게 하였다. 하여 미국은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등 모든 분야를 완전히 거머쥐였으며 미국인들은 식민지지배자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고 전횡을 일삼았다.

이처럼 미국은 미군정의 《법령》들과 식민지괴뢰정부를 강박유도하여 체결한 《협정》을 통하여 강점 첫 시기에 벌써 괴뢰들에게 지배와 예속의 굴레를 단단히 씌워놓았다.

비굴한 주구, 오만한 상전

리승만역도는 괴뢰정부가 조작되기 훨씬 전인 1947년 7월당시 미군사고문이였던 로버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여하튼 우리는 외적의 침략을 막기 위하여 이곳 군대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미국사람들은 자신의 안전보장을 위하는 견지에서 <한국>에 있어서의 미국의 리해관계를 옹호할 결심을 가져야 하고 우리는 이를 적극 지지할것입니다.》

이 망발에서 두가지 문제를 확인할수 있다.

하나는 리승만역도가 북의 동족을 《적》으로 여기고있었다는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미국의 안전보장과 리해관계를 위해 미강점군을 벗으로 인식하고있었다는것이다. 이러한 사대매국적, 반민족적인 사고관점을 가진자가 바로 리승만역도였다.

역도의 친미사대매국, 동족대결광증은 미국의 지휘아래 북침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다는 용납 못할 민족반역행위에서 드러났다. 그러나 《아침은 해주에서, 점심은 평양에서, 저녁은 신의주에서 먹겠다.》고 호언장담하며 일으킨 북침전쟁은 인민군대의 노도와 같은 반공격에 의해 전쟁개시 3일만에 서울이 함락되는 등 미국과 괴뢰들을 비참한 파멸에로 몰아가는 계기로 되였다.

바빠맞은 리승만역도는 1950년 7월 대전에서 맥아

더에게 괴뢰군의 작전지휘권을 넘기는 편지를 보내였다.

《<한국>을 위한 국제련합의 공동군사노력에 있어 <한국>내 또는 근해에서 작전중인 국제련합의 모든 부대는 귀하의 통솔하에 있으며 또한 귀하는 그 최고사령관으로 임명되여있음을 감안하여 본인은 현 작전상태가 계속되는 동안 일체의 지휘권을 이양하게 된것을 기쁘게 여기는바이오며 수여한 지휘권은 귀하자신 또는 귀하가 <한국> 또는 <한국>근해에서 행사하도록 위임한 기타 사령관이 행사하여야 할것입니다.

<한국>군은 귀하의 휘하에서 복무하는것을 영광으로 생각할것이며 <한국국민>과 <정부>도 고명하고 훌륭한 군인으로서 국제련합의 모든 군사권을 갖고있는 귀하의 전체적지휘를 받게 된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구절구절 친미사대와 아부굴종으로 얼룩진 이 편지를 받은 맥아더는 흡족하여 괴뢰군의 통수권을 《이양받겠다.》는 회답편지를 주구에게 보내였다.

괴뢰외무부도 같은 시기 미국대사관에 편지를 보내였다. 편지는 《귀대사관의 서한중에서 언급된 다음과 같은 제의를 이의없이 수락하는바를 통보하는 영광을 가지는바입니다. 즉 (1) 미국군법회의는 <한국>주둔 미국군대의 구성원에 대하여 배타적인 재판권을 행사할수 있다. … (3) 외무부는 전쟁이라는 절박한 사태에 감안하여 미국군대는 미국군대이외의 어떠한 기관에도 복종할수 없으며…》라는 굴종적인 내용으로 미군의 치외법권적 지위를 확인하였다.

이렇게 상전과 주구사이의 서한교환형식이라는 비

정상적인 방법으로 《재한미국군대의 관할권에 관한 협정》(일명 《대전협정》)이 조작됨으로써 미국은 작전지휘권을 비롯한 괴뢰군에 대한 통수권을 완전히 장악하였으며 미군에 치외법권적인 지위를 다시한번 부여하였다. 미국은 이 초보적인 체모도 갖추지 못한 협정 아닌 협정을 빗대고 이른바 《유엔군》사령관이 괴뢰군에 대한 지휘통수권을 전면적으로 행사하게 하였으며 미군의 치외법권적지위를 《합법화》했다.

이에 대해 당시 괴뢰언론들은 《전쟁이라는 조건에 빙자하여 일방적으로 의사를 강요하여 성립시킨것》, 《미국은 초보적인 협정조인절차와 형식마저 무시하고 이남의 륙, 해, 공군에 대한 지휘권을 획득하였다.》 등으로 개탄하였다.

결국 미국은 조선전쟁도발이전에는 《과도기에 시행될 잠정적군사안전에 관한 행정협정》의 조작으로, 조선전쟁시기에는 《대전협정》의 조작으로 괴뢰군에 대한 통수권을 철저히 장악하고 미군의 치외법권적지위를 공고히 했다.

리승만역도는 1952년 5월에는 《<대한민국>과 통합사령부간의 경제조정에 관한 협정》(일명 《마이어협정》) 체결로 경제와 군사부문을 미국의 침략전쟁수행에 더욱 복종시키였다. 《협정》은 《합동경제위원회》를 설치할것을 규정(제1조)하고 이 기구를 통하여 미국이 괴뢰경제와 계획의 모든 사항을 검토하고 통제할 권한을 가진다는것을 명시하였다.

이렇게 전쟁기간 모든것을 미국에 통채로 섬겨바친

리승만역적패당은 외세와 함께 《북진통일》, 《멸공》의 망상을 이루어보려고 발악하였다. 하지만 3년간의 전쟁에서 미국과 괴뢰들은 쓰디쓴 참패를 당하고야말았다.

전쟁에서의 참패로 막다른 궁지에 빠진 리승만역적패당의 속심은 어떻게 하나 미국의 바지가랭이를 부여잡고 추악한 잔명을 부지하는것이였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리승만괴뢰도당은 영구강점을 획책하는 미국의 새로운 요구를 전면적으로 받아물었다.

어느한 괴뢰출판물에는 이렇게 지적되여있다.

《…이 땅을 거쳐간 수많은 외국군가운데 상당수는 극소수 지배집단이 그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애걸해서 불러들인 반민족적사리사욕의 결과였다는것이 확인되였다. 그때도 그들은 외국군을 끌어들일 명분으로 <안보>를 내세웠다. 그러나 그 <안보>가 나라와 민족의 안보가 아니라 한줌도 안되는 그들의 부도덕한 특권을 유지하기 위한 <안보>였다는것을 력사는 증언하고있다.》

한편 청소한 우리 공화국앞에서 당한 패배자의 수치는 미국으로 하여금 더 교활하고 집요한 대조선지배정책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였다. 그것은 괴뢰들에 대한 군사적지배를 더욱 공고히 하고 괴뢰 전 지역을 새 전쟁도발을 위한 튼튼한 군사적침략기지로 만드는것이였다.

괴뢰지역을 발판으로 하여 전 조선은 물론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확립하기 위해 미국은 괴뢰들을 《방위》의 간판밑에 군사적종속관계에 얽어매고 그들을 총알받이로 하여 북침야망을 실현하려고 하였다.

미국과 괴뢰들의 이 추악한 기도와 야망의 산물이

바로 《호상방위조약》이다.

미국은 이미 1953년 6월 25일 리승만역도와 회담을 벌려놓고 《휴전후 호상방위조약을 체결한다. 미국은 장기간 경제원조와 2억US$의 원조를 공여한다. <한국>륙군 20개 사단의 증강 및 해, 공군력을 증강시킨다.》는것을 합의하였다. 괴뢰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을 미국이 계속 가지는 조건에서 미군의 강점을 계속 유지하는것을 골자로 하는 이 합의의 본질은 사실상 미국과 괴뢰들사이에 수직적인 《군사동맹》관계설정을 의미하는것이였다.

미국은 이어 정전협정체결직후인 1953년 8월 8일 국무장관 덜레스를 서울에 급파하여 괴뢰들과 《호상방위조약》을 가조인하였다.

미국이 서둘러 괴뢰들과 《호상방위조약》을 가조인한것은 전후에 응당 제기될 조선에서의 외국군대철거에 대한 요구를 거부하고 저들의 강점을 계속 유지할수 있는 《법률적기초》를 마련하며 반공화국침략책동에 괴뢰들을 돌격대로 내몰기 위해서였다.

이것은 조선정전협정에 대한 고의적인 유린이고 위반이였다.

1953년 7월 27일 조선정전협정이 체결되였을 때 전체 조선인민과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의 관심과 기대는 정전협정 제4조 제60항에 집중되고있었다. 그것은 제60항을 리행하는것이 조선에서 모든 외국군대를 철수시키고 전쟁의 화근을 제거하며 조선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데서 나서는 관건적문제였기때문이였다. 미국이 미군의 영구주둔을 명시한 《호상방위조약》을 괴뢰들과 체결함

으로써 조선에서 모든 외국군대를 철거시키고 민족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우리 민족의 지향은 난관에 부닥치게 되였다.

친미사대주의자들은 오늘까지도 이 《조약》의 체결이 마치 괴뢰들이 정전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저들의 외교적인 요구가 관철된것같이 사실을 오도하여 류포시켜오고있다. 그러나 이것은 정전협정조인에 참여할 자격조차 없었던 리승만괴뢰정권, 미국의 식민지주구인 괴뢰당국의 가련한 처지를 미화분식해보려는 터무니없는 외곡이다.

《조약》체결전에 《조약》의 체결을 지시한것은 미국이였으며 이 《조약》의 원문을 작성한것도 미국이였다. 《조약》체결은 미국의 파렴치한 요구에 식민지《정권》이 비굴하게 굴종한것이였다. 1953년 10월 1일 워싱톤에서 정식 조인되고 1954년 11월 18일 발효된 《호상방위조약》은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대한 미국의 리해관계를 실현하고 식민지괴뢰정권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법》적기초로 되였다.

비굴한 주구와 오만한 상전과의 추악한 공모결탁의 산물인 《한미호상방위조약》으로 하여 초래될 치욕과 고통은 아직 누구도 상상할수 없는것이였다.

침략적인 조약, 굴종의 맹약—《호상방위조약》

친미사대매국세력은 1953년 10월 1일 미국과 괴뢰들간에 체결된 《호상방위조약》으로 하여 《한미동맹》의 《법》적틀거리가 마련되였고 《호상방위조약》이야말로 《서로의 가치와 리익을 최대로 보장해주는 조약》이라고 떠들고있다. 그러나 이것은 《호상방위조약》의 추악한 본색을 가리워보려는 넉두리에 불과하다.

괴뢰위정자들이 찬미하는 《호상방위조약》은 조선에서 또다시 전쟁을 도발해보려는 호전광들사이에 체결된 침략적조약이다.

조선전쟁에서 쓰디쓴 패배를 당하고 항복서에 도장까지 찍은 미국은 여기서 교훈을 찾을 대신 괴뢰지역에 대한 《방위》를 계속 책임지고있어야 하는듯이 떠들어댔다. 이것은 저들의 지배와 괴뢰군에 대한 통수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흉심에 따른것이였다. 이러한 불순한 기도, 교활한 흉계의 산물이 바로 《호상방위조약》이였다.

괴뢰지역을 철저히 대륙침략의 교두보, 전진기지로 만들어놓으려는 미국상전의 흉악한 속심과 미국의 하수인이 되여서라도 기어이 실현해보려는 괴뢰역적패당의 북침야망은 《서로의 가치와 리익을 최대로 보장》해주는 《조약》을 만들어내게 하였다.

괴뢰군통수권과 작전지휘권장악과 관련한 모든 《협

정》들을 재삼 확증한 이 《조약》은 미국이 괴뢰지역을 군사기지로, 군사적부속물로 철저히 전변시키고 식민지고용군대로서의 괴뢰군을 대대적으로 증강하고 통제장악하여 저들의 침략과 전쟁정책수행에 효과있게 써먹으려는 야욕을 여지없이 드러내놓은 날강도적인 《조약》이며 괴뢰들이 미국에 아부굴종하면서 영원히 미제의 식민지로 남아있을것을 확약한 사대매국조약이다.

전문과 6개 조의 조항으로 이루어진 《호상방위조약》은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집단적인 방위》라는 미명하에 미국이 괴뢰들을 반공화국압살을 위한 《전쟁동맹》에 끌어들이는것을 《합법화》하였다.

《조약》은 우선 제2조에서 《당사국중 어느 일국의 정치적독립 또는 안전이 외부로부터 무력공격에 의하여 위협을 받고있다고 어느 당사국이든지 인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당사국은 서로 협의한다. 당사국은 단독적으로나 공동적으로나 자조와 호상원조에 의하여 무력공격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지속하여 강화시킬것이며 본 조약을 실행하고 그 목적을 추진할 적절한 조치를 협의와 합의하에 취할것이다.》라고 명시하였다.

이것은 미국과 괴뢰들이 그 누구의 《무력침공위협》에 대한 판단을 일방적으로 내린데 따라 괴뢰들과 공조하여 공화국을 군사적으로 압살하기 위한 침략전쟁을 벌릴수 있도록 규정한것이다. 즉 공화국의 《남침위협》을 구실로 지난 조선전쟁을 도발한것처럼 제2의 조선전쟁을 일으키려는 위험천만한 기도를 그대로 《법》화한것이다.

《조약》은 또한 제4조에서 《상호합의에 의하여 미국의 륙군, 해군과 공군을 <한국>의 령토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한국>이 허용하고 미국은 이를 수락한다.》고 밝혔으며 제6조에서는 《본 조약은 무기한으로 유효하다.》고 명시함으로써 미군의 영구강점이 《합법화》되게 되였다.

이 조항들에 따라 미국은 괴뢰 전 지역 그 어디를 막론하고 저들의 륙해공군을 배치할수 있는 무제한한 권리를 가지게 되였으며 괴뢰들은 미군의 지속적인 강점을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는 공약상의 의무를 떠말게 되였다.

이와 관련하여 한 교수는 이렇게 폭로하였다.

《<한국>을 주권적독립국으로 믿고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것은 착각이다. <한국>은 미합중국 군대에 예속된 무주권국이다.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법적근거인 <호상방위조약> 제4조에 의해서 <한국>의 땅, 바다, 하늘은 무조건, 무제한, 무기한적으로 미합중국 군대에 양도되여있다. 다시말하여 <한국>은 땅까지 미국에 장악당하고있는 식민지예속국이다.》

제2차 세계대전이후 미국이 다른 나라들과 군사조약들을 체결하였지만 조약체결상대의 령토전역을 저들의 영원한 군사기지로 리용할 권리를 규정한것은 괴뢰들과 체결한 《호상방위조약》이 처음이다.

《호상방위조약》체결로 하여 역적패당은 미군의 강점을 영구적인것으로 만들고 미군의 기지사용을 공간적인 제한을 초월하는 전 령역에 확대하게 만듦으로써 력

사에 류례없는 망국적인 식민지지배의 완전한 《합법화》를 실현시켜주었다. 《호상방위조약》이야말로 괴뢰지역을 미국의 현대판식민지로, 미국의 51번째 주로 전락시킨 예속의 굴레, 지배의 멍에이다.

리승만괴뢰도당은 1954년 11월에는 《호상방위조약》의 보충적《협정》으로서 《합의의사록》을 미국과 체결하여 《한미동맹》의 침략적, 예속적성격을 한층더 부각시키였다.

미국과 괴뢰들은 《합의의사록》에서 《<한국>은 국토통일을 위한 노력에 있어서 미국과 협조한다.》고 명시함으로써 조선의 통일문제에 대한 외세의 간섭을 《합법화》하였다. 또한 《합의의사록》을 통해 《<유엔군사령부>가 <한국>방위의 책임을 부담하는 동안 <한국>군은 <유엔군사령부>의 작전지휘하에 둔다.》고 규정함으로써 미국은 괴뢰군에 대한 통수권을 더욱 확고히 틀어쥐였다.

이 《합의의사록》을 통해 《대전협정》에서 《현 작전상태가 계속되는 동안 일체의 지휘권을 이양한다.》고 했던 조항은 페기되고 미국은 작전상태가 없는 시기에도 괴뢰군에 대한 통수권을 틀어쥐고 무한정 행사할수 있게 되였다.

실로 미국과 괴뢰들사이의 《동맹관계의 기초》라고 하는 《호상방위조약》은 괴뢰지역을 미국의 영원한 식민지, 군사기지로 선포한 이 세상 가장 굴욕적이고 예속적이며 침략적인 매국조약이다.

살인마들의 소굴, 침략의 전초기지— 미군기지

우에서 언급한것처럼 《한미호상방위조약》 제4조와 제6조는 괴뢰 전 지역 그 어디를 막론하고 미 륙, 해, 공군을 무기한 배치할수 있는 권리를 미국에 부여하였다.

이 《조약》을 빗대고 미국은 일본에 있던 《유엔군사령부》를 서울로 끌어들이였으며 저들의 침략무력을 괴뢰지역과 그 주변에 주둔시키였다. 예속적이며 침략적인 매국조약에 의해 괴뢰지역전체가 미군의 군사기지로 전변되였다. 미군기지로 하여 초래된 굴종과 치욕의 력사는 아무리 세월이 흐른다고 해도 지워질수 없는것이다.

미군기지는 서울, 인천, 대구, 부산 등 거의 모든 지역을 포괄하고있고 그 밀도에 있어서 세계에서 가장 조밀할뿐 아니라 구성에서도 륙해공군은 물론 우주군까지 다 망라하고있는 종합군사기지이다.

다른 나라에 있는 미군사기지들은 대체로 그 나라의 일부 지역에 한정되여있고 일부 군종, 병종에 국한되여있다. 미국이 세계 여러 나라에 군대를 주둔시키고있고 해당 나라들과 협정도 체결하고있지만 이곳에서처럼 남의 땅을 무제한으로 사용할 권리를 가진 곳은 없다.

괴뢰 전 지역을 뒤덮은 미군기지로 말미암아 수많은

인민들이 하루아침에 조상대대로 내려오던 땅과 집을 미군에게 빼앗기고 생존권을 무참히 유린당하였다. 미군이 강점한 직후부터 오늘까지 수십년세월 미군기지가 틀고앉은 서울과 인천, 부산, 파주 등 곳곳에서는 미군에게 땅과 인생을 송두리채 빼앗긴 인민들의 원한에 찬 울부짖음소리가 그칠줄 모르고있다.

서울 한복판에 자리잡고있던 룡산기지의 경우 동서로는 《한강대교》, 《동작대교》, 《반포대교》에 걸치는 넓은 지역을 포괄하고 남북으로는 한강이북에서 숙명녀자대학교입구에 이르는 넓은 땅을 차지하고있었다.

들어가는 문만 해도 20여개가 넘는 이 기지에는 주요 미군사령부들이 도사리고있었으며 그밖에 주택, 학교, 병원, 유흥장 등 미제침략군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까지 완벽하게 갖추어져있어 일명 《룡산합중국》이라고 불리웠다. 지난 전쟁시기 주민들을 강제로 내쫓고 틀고앉은 동두천미군기지 역시 전체 도시면적의 75.2%라는 거대한 땅을 차지하고있었다.

미군기지—이는 곧 살인과 방화, 략탈과 파괴를 근본속성으로 하는 양키들의 본거지이며 미군고용병들의 집결처이다.

원래 오물이 모여있는 곳에서는 악취가 풍기고 그 주변까지 오염되여 썩기마련이다.

미군기지는 사람잡이를 업으로 하는 살인마들의 소굴이다.

추악한 미군이 둥지를 틀고있고 그 더러운것들이 기여나와 싸다니는 미군기지와 그 주변은 그야말로 악의

서식장이며 온갖 범죄의 란무장이다.

괴뢰 전 지역의 미군사기지들에 틀고앉은 미제살인귀들은 인민들을 참혹하게 살해하였다.

ㅇ 《2월 4일 미군기지주변에서 깡통을 줏던 서명자씨가 미군의 총에 맞아 숨졌다. 당시 서씨는 임신 9개월이였다.》

ㅇ 《2월 6일 안재섭군(17살)이 친구와 함께 토끼몰이를 나갔다가 미군부대 철조망에 접근하는 순간 미군보초병이 쏜 총탄이 목덜미를 관통하여 숨졌다.》

ㅇ 《2월 9일 허창국소년(13살)이 미군부대 철조망근처를 지나다가 아무런 리유없이 보초병 알렌 헤토간이병이 쏜 렵총에 맞아 중상을 당하였다.》

ㅇ 《2월 17일 먹을것을 구하기 위해 미군부대주변에서 빈 도람통을 주으려던 황오성씨가 미군의 총알세례를 받고 숨졌다.》

이것은 1964년 2월 한달동안에 미군기지들에서 저질러진 치떨리는 살인만행중의 공개된 자료의 일부이다.

1986년 4월 5일 13시 10분경 송탄미공군기지의 연료저장탕크에서 미군병사놈은 이곳에서 작업을 하던 허정애(34살)녀인을 겁탈하려다가 반항에 부딪치자 그를 주먹으로 때리고 군화발로 마구 짓밟아 피투성이로 만들었으며 녀인의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오는 동료인부들에게 《M—16》소총을 란사하고 화염방사기로 불을 뿜어 현장에서 15명을 무참히 살해하고 12명에게 중상을 입히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감행하였다.

당시 괴뢰출판물들은 이 사건을 보도하면서 《귀

신》도 너무 어이없고 기가 막혀 통곡하지 않을수 없는 참극이라고 하여 《귀곡추추》라고 하였다.

백주에 어린애를 업은 녀인을 붙들어놓고 집단적으로 륜간한 끝에 살인한 의정부집단륜간사건, 임신부에게 달려들어 수욕을 채우려다 반항하자 군화로 국부와 하복부를 마구 차서 잔인하게 살인한 임신부살인사건, 소녀를 막사로 끌고가서 집단릉욕하려다가 저항한다고 목졸라죽인 소녀집단륜간사건 등 미제식인종무리들이 미군기지와 그 주변에서 감행한 귀축같은 살인만행들은 이루 헤아릴수 없다.

미군기지야말로 날강도 미제의 잔인성과 야만성, 살인마적정체를 만천하에 고발하는 생동한 증거물이다.

미군기지는 미국의 대조선, 세계지배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침략의 전초기지이다.

미국은 미군기지가 조선반도에서 그 무슨 《남침》을 억제하고 《평화》를 보장하며 동북아시아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력설하고있지만 실지로는 공화국을 압살하기 위한 미국의 군사전략적요충지이며 세계제패전략에 따라 전개된 극동최대의 전쟁화약고이기도 하다.

미강점군의 사령부들이 집결되여있는 평택기지는 북침전쟁을 위한 합동작전계획수립 및 완성, 각종 전쟁연습조직과 전술연구, 무장장비도입 및 배치, 부대조직과 개편, 평시와 전시 소속부대에 대한 통제, 유사시 미군과 괴뢰군에 대한 작전지휘 등 전쟁각본들을 짜고 집행하는 미국방성의 현지지부라고 말할수 있다.

미태평양공군사령부산하 미제7공군사령부가 있는 오산공군기지를 비롯하여 각지에 전개되여있는 미공군기지들에서는 전투폭격기들이 항시 활주로에서 북침출격을 위한 비상대기상태에 있다.

또한 포항과 묵호, 인천, 부산, 진해 등 동서남해에 있는 미해군기지들은 미핵항공모함과 핵잠수함을 비롯한 미해군무력의 해상북침공격에 필요한 전진기지, 출격기지로 되고있다.

미군기지는 또한 북침전쟁과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패권을 위한 미국의 전방병참기지로 되고있다.

미국은 정전협정이 체결된지 4일만인 1953년 7월 31일 《군상품》이라는 상표를 붙여 부산항을 통하여 106문의 포와 수십만발의 각종 총포탄을 비법적으로 끌어들인 때로부터 지금까지 괴뢰지역에 있는 미군기지들에 각종 대량살륙무기들과 군사작전장비들을 계속 끌어들이였다.

2002년 3월 미국은 한강이북의 미군기지들을 한강이남으로 옮기기 위한 《련합토지관리계획》이라는것을 괴뢰당국과 체결하였다. 그후 미국은 괴뢰들을 강박하여 경기도 평택시 대추리의 근 1 500만㎡에 달하는 지역에 미군의 해외주둔기지로는 제일 큰 미군기지를 10년동안 건설하였다.

그 기간 100억US$가 넘는 미군기지건설비의 90% 이상을 괴뢰당국이 미국상전에게 섬겨바치였다. 오늘날 《캠프 험프리스》로 불리우고있는 평택미군기지때문에 대추리라는 지명도 사라져버리고 그곳에 살던 사람들의 인생도 송두리채 무너져내리였다.

2016년에 미국은 경상북도 성주군에 고고도미싸일방어체계 《싸드》를 끌어들이였다. 성주군주민들은 물론 각계각층 인민들이 동북아시아지역의 정세불안을 초래하고 지역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엄중히 침해하는 《싸드》배치를 견결히 반대하였지만 괴뢰역적패당은 미국의 지령대로 《싸드》를 끝끝내 배치하였다.

미국과 괴뢰들은 미군기지외에 괴뢰군관할하에 있는 기지 및 시설들도 미군의 군사적목적에 사용할수 있도록 제도화해놓았다. 미군의 군사기지와 군사시설건설과 리용은 괴뢰들의 각종 《법》에 의해 각방의 보호를 받고있는데 《토지수용법》(1961년 1월), 《항공법》(1963년 3월), 《군사시설보호법》(1972년 2월)을 비롯한 100가지도 넘는 《법》들은 미군이 괴뢰지역의 하늘과 땅, 바다를 제마음대로 군사적목적에 최대한 활용할수 있게 하고있다. 《토지수용법》만 보더라도 토지수용자(미군)의 행위를 방해하는것을 금지하고있으며 군사적목적에 한해서는 동식물 등 자연파괴도 허용하고있다.

미군은 괴뢰지역에 있는 저들의 훈련장을 태평양지역의 미공군과 지상군의 훈련장으로도 활용하고있다. 하기에 한 미국방성 고위관리는 괴뢰지역에 있는 저들의 군사기지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군사령관들은 <한국>을 미지상군훈련을 위한 세계에서 가장 적합한 장소로 믿고있다. <한국>은 넓은 작전지역, 광대한 자유사격지역일뿐 아니라 비무장지대의 북쪽에는 살아있는 적이 있다. 특히 <한국>은 미국이 세계 각처에 가지고있는 기지중 우리에게 나갈것을 제기하

지 않는 곳이며 사용료를 내라는 사람도 없는 곳이다.》

온 강토가 미군기지로 뒤덮여있는 괴뢰지역의 현실은 참으로 민족적울분과 수치를 금할수 없게 한다.

미국의 대포밥—괴뢰군

미강점군이 괴뢰군의 작전지휘권을 장악하고있다는 사실은 미국에 대한 철저한 군사적예속성 다시말하여 괴뢰들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지배를 상징하는 전형적인 표현으로 된다.

군통수권은 주권의 중요구성부분이며 독립국가의 기본징표를 구성하는 요소의 하나이다. 군통수권을 남에게 빼앗기고 군사적으로 예속된 나라가 정치적으로 자유로울수 없으며 자립적인 민족경제를 건설할수 없다는 것은 더 론할 여지도 없다.

우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사실 괴뢰군의 작전통제권은 괴뢰군이 조직된 때부터 미국에 있었다.

1948년 8월 미강점군사령부와 리승만괴뢰정부는 《과도기에 시행될 잠정적군사안전에 관한 행정협정》을 체결하여 미군사령관이 괴뢰군을 지휘한다는데 합의했다. 1949년 미국은 기만적인 미군철수놀음을 벌려놓은 다음에도 500명규모의 미군사고문들로 괴뢰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을 행사하였다. 당시 미군사고문단 단장이였던 윌리암 로버트는 조선전쟁직전이던 1950년 6월 5일 《뉴욕헤럴드 트리뷴》과의 기자회견에서 《미군장병 500명을 현명하게, 결정적으로 사용하면 미군대신에 총을 쏘아줄 10만명의 병사를 훈련시킬수 있다. 미군사고문단은 그의

산 증거이다. 미국의 납세자는 <한국>에 투자한 자본을 지키는 군대, 최소비용으로 최대효과를 보는 군대를 가지고있다.》라고 언급한바 있다.

조선전쟁시기 《대전협정》으로 괴뢰군의 통수권을 《합법적》으로 거머쥔 미국은 1954년 11월 《호상방위조약》의 후속《협정》인 《합의의사록》을 통해 《유엔군사령부》가 괴뢰군에 대한 통수권을 계속 틀어쥐도록 하였다.

그후 1975년 유엔총회 제30차회의에서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고 괴뢰지역을 강점한 모든 외국군대를 철거시키며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꿀것을 요구하는 공화국측 결의안이 채택되였다. 바빠맞은 미국은 1978년 11월 부랴부랴 《한미련합군사령부》를 조작하였다. 사령관은 미군 륙군대장으로 규정하고 괴뢰군 륙군대장을 부사령관으로 둔 《한미련합군사령부》는 《유엔군사령부》가 가지고있던 괴뢰군에 대한 통수권을 그대로 넘겨받았다.

그러나 군사주권을 반환하고 미군을 철수시킬데 대한 요구는 끊임없이 이어져왔다. 미국은 각계층의 이러한 반미감정을 눅잦히기 위해 1994년 12월초 괴뢰군의 《자주적능력》을 향상시키고 미국과 대등한 《동반자》로서의 자격을 줄것처럼 기만하면서 작전지휘체계를 전시와 평시로 구분하여 형식상 《평시작전통제권》을 괴뢰들에게 넘겨주는 놀음을 벌렸다.

그러나 《련합위기관리》, 《전시작전계획수립》, 《합동훈련 및 연습계획작성과 실시》 등의 핵심권한은 저들이 장악하고 평시에도 괴뢰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계

속 행사하였다.

이에 대해 어느한 언론은 《미국은 1994년 12월당시 <정부>에 평시작전통제권을 이양하였지만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요식행위에 불과했다. 미국은 평시작전통제권을 이양하더라도 평시위기관리권한을 비롯해 작전계획수립, 합동훈련계획 및 실시, 정보관리 등으로 이루어진 6개 항의 <련합권한위임사항>을 주<한>미군사령관의 권한으로 남겨둠으로써 이전과 다름없이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행사할수 있게 하였다.》고 폭로하였다.

미국은 2000년대에 들어와 반미자주기운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전시작전통제권》반환요구가 더욱더 거세여지자 마지못해 2012년 4월까지 《전시작전통제권》을 괴뢰들에게 넘겨주겠다고 하였지만 2008년 리명박역적패당이 집권하자 그 시기를 2015년으로 연기하는 놀음을 벌렸으며 박근혜역적패당의 집권시기에는 《전시작전통제권》반환시기를 무기한 연기하였다.

지금 윤석열역적패당은 미국으로부터 《전시작전통제권》을 반환받는것은 시기상조라고 떠들고있다.

온 세계가 지배와 예속을 벗어던지고 자주의 길로 나가고있는 때에 외세에게 빼앗긴 군사주권을 돌려받지 않겠다고 앙탈질을 하는 괴뢰패당의 추악한 사대매국행위야말로 만사람을 경악케 하고있다.

주권국가의 초보적인 징표인 군통수권도 지니지 못한 괴뢰군이 미국의 총알받이, 대포밥으로 복무하게 되는것은 불보듯 뻔한 리치이다.

수많은 청년들이 미국의 침략전쟁의 대포밥, 식민지

고용군으로 끌려가 꽃나이청춘을 짓밟히고 억울하게 생명을 빼앗기였다.

1950년의 이른바 《대전협정》으로 리승만역도로부터 괴뢰군통수권을 빼앗아낸 미국은 괴뢰군을 북침전쟁의 돌격대로 내세우는것도 부족하여 괴뢰지역 청년들을 《카투사》라는 명칭으로 미군에 강제로 징집하였다. 1950년 8월 대구와 부산에서 길가던 장정들을 강제로 끌고가는것으로 시작된 《카투사》징집인원수는 조선전쟁기간에도 수만명에 달하였다. 한 괴뢰언론이 밝힌 자료에 의하면 전쟁기간 《카투사》사망, 실종률은 미군사망률의 10배에 달하였다고 한다. 결국 수많은 청년들이 미국의 대포밥이 되여 속절없이 사라져버린것이다.

오늘도 수천명에 달하는 《카투사》들이 미군의 고용살이를 하면서 인종차별과 기합과 폭행속에 청춘을 짓밟히우고있다.

미국은 《동맹》의 올가미를 리용하여 식민지고용군인 괴뢰군을 저들이 세계 각지에서 일으킨 크고작은 침략전쟁의 대포밥으로 내몰았다. 월남전쟁만 하여도 괴뢰군 연 30여만명이 끌려가 그중 5 000여명이 목숨을 잃고 1만 6 000여명이 부상을 당하였으며 수만여명이 미군이 살포한 고엽제의 후유증에 시달리며 미국과 괴뢰당국을 저주하고있다. 새 세기에 들어와서도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등 미국이 세계도처에서 벌려놓는 침략전쟁터들에 수많은 청장년들이 미군의 총알받이로 끌려갔다.

현지고용병들을 총알받이로 내세워 미국의 직접적군사개입을 될수록 피하며 아시아에서는 아시아인들끼리,

아프리카에서는 아프리카인들끼리 싸우게 하여 어부지리를 얻으려는것이 미국식구상이다.

괴뢰군이야말로 미국의 리익을 보호하고 미국의 리권을 지켜주는 전쟁대포밥, 현지파수군이다.

세계에서 가장 위험천만한 핵전쟁발원지로

괴뢰지역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천만한 핵전쟁발원지로 변하고있다.

《호상방위조약》체결로 하여 괴뢰들은 미국의 침략전쟁수행을 집행하기 위한 전쟁하수인의 멍에를 뒤집어쓰게 되였다. 괴뢰지역이 세계에서 가장 위험천만한 핵전쟁발원지로 변하게 된것은 《호상방위조약》이 초래한 후과이며 미국의 군사식민지의 치욕스런 비참상이다.

미국은 정전협정이 체결된 다음해인 1954년부터 《포커스 렌즈》합동군사연습을 개시하여 조선반도정세를 또다시 전쟁전야의 긴장상태에 빠져들게 하였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각종 명칭들을 단 전쟁연습들이 괴뢰지역에서 끊임없이 감행되면서 조선반도에는 항시적으로 언제 새 전쟁의 불길이 터질지 모를 일촉즉발의 정세가 조성되고있다.

력사적인 7.4공동성명발표후 뜨겁게 달아오르는 평화와 통일기운에 화약내를 끼얹으면서 북남관계를 대결국면에로 되돌려세운것이 미국과 괴뢰들이 감행한 악명높은 《팀 스피리트》와 《을지 포커스 렌즈》합동군사연습이였다.

1992년에 북남사이의 불가침선언발효로 통일의 열망이 높아가자 정세를 전쟁접경에로 몰아간것은 그해말에

강행된 《독수리 92》와 그 다음해에 재개된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이였다.

미국은 합동군사연습을 우리 공화국에 대한 핵위협공갈을 가증하는 공간으로 리용하여왔다. 실지 미국은 1950년대와 1960년대의 《포커스 렌즈》와 《포커스 레티너》합동군사연습에 《오네스트죤》전술핵미싸일, 280㎜원자포를 비롯한 핵무기들을 대량투입하고 우리 공화국을 로골적으로 위협공갈하였다.

미국은 괴뢰지역에 배비해놓은 1 000여개의 핵무기들을 해마다 강행한 합동군사연습들에 동원시키군 하였다. 미국의 핵전쟁전략이 악랄해질수록 그를 실행하기 위한 합동군사연습도 그만큼 엄중해졌다.

랭전시기에 미국은 조선반도에서의 핵전쟁전략을 《공지전》리론에 기초하여 작성하였다. 《공지전》은 지상군부대와 항공륙전대 및 지상지원전투비행대들이 협동하여 전선과 종심을 동시에 공격하는 미제침략군의 기본전법이였다.

미국은 조선반도에서 이 전법을 핵무기와 결합하여 적용하려고 하였다.

우리 공화국의 전선지역뿐 아니라 후방종심지역에도 동시에 핵타격을 가하며 그후 특공대를 투입하여 지상군과의 협동으로 전쟁을 종결지으려는것이 미국의 전략적기도였다. 1970년대—1980년대의 《한》미합동군사연습은 모두 이러한 핵전쟁전략에 따라 숙달되였다.

랭전종식후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위험은 더욱 높아졌다.

랭전시기에 미국은 《조선반도유사시》 즉 전쟁상태에서 핵무기로 우리 공화국을 타격하는것을 핵전쟁전략으로 내세웠다면 랭전종식이후부터는 핵무기로 우리 공화국을 선제타격하는것을 기본으로 내세우고 핵전쟁전략을 부단히 보충완성해왔다.

1993년에 우리 공화국이 준전시상태를 선포하고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서 탈퇴하는 대용단을 내리게 된것은 미국의 핵전쟁도발책동이 극도에 달하였기때문이다. 합동군사연습의 규모가 커지고 기일이 늘어날수록 그에 비례하여 핵전쟁위험도 더욱 커졌다는것은 수십년에 걸치는 조미대결사가 웅변적으로 실증해주고있다.

부쉬정권시기에 미국은 1990년대에 체결된 조미사이의 합의들을 모두 백지화하였을뿐 아니라 우리 공화국을 핵선제타격대상명단에 올리고 로골적으로 위협해나섰다.

2000년대에 들어와 미국은 전략폭격기 《B—1B》와 핵전략폭격기 《B—52》, 《B—2》를 무시로 들이미는가 하면 핵항공모함 《로날드 레간》호타격집단, 《시어도 루즈벨트》호타격집단, 《니미쯔》호타격집단을 동시에 조선동해상에 전개하는 등 전략핵공격수단들의 조선반도전개를 상시배비수준으로 유지한 가운데 《을지 프리덤 가디언》, 《을지 프리덤 쉴드》, 《련합전시증원연습》, 《키 리졸브》, 《독수리》 등의 각이한 명칭을 달고 괴뢰들과 공화국을 겨냥한 합동군사연습을 그칠새없이 벌리고있다.

특히 미국은 우리 공화국의 자위적억제력이 비상히 강화되는것으로 하여 핵선제타격하는 방식으로 《북

점령》을 실행해보려던 대조선침략정책이 실현불가능하게 되자 우리의 국가지도부를 노린 《참수작전》, 《족집게식타격》이라는것을 고안해내고 그것을 합동군사연습들을 통해 숙달하고있다.

2018년 우리 공화국의 주동적인 노력에 의하여 조선반도에서 관계개선과 긴장완화를 위한 긍정적인 분위기가 조성된 후에도 미국은 괴뢰들과 《맥스 썬더》련합공중전투훈련, 《동맹 19—1》합동군사연습, 련합특수작전훈련, 《련합지휘소훈련》 등 무려 100차이상에 달하는 합동군사연습들을 벌려놓고 정세를 전쟁국면에로 몰아갔다.

최근 미국과 괴뢰들은 우리 국가의 자주권과 안전리익을 란폭하게 침해하는 반공화국전쟁소동에 더욱 악랄하게 매달리고있으며 그 엄중성과 위험성은 더이상 용납할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있다.

미국호전광들은 우리 국가에 대한 핵무기사용기도를 꺼리낌없이 드러내면서 5세대스텔스전투기들과 핵항공모함, 핵잠수함과 같은 전략자산들을 더 많이 전개할것이라고 공공연히 력설하고있다. 반공화국대결에 환장이 된 윤석열괴뢰역도도 그 무슨 《선제타격》과 《압도적응징》에 대해 떠벌이고있다.

허세와 객기에 열이 뜬 호전광들은 과거 《독수리》합동군사연습수준이상의 강도높은 합동군사연습을 련이어 벌릴것이라고 공표하고 우리 공화국에 대한 침투 및 전략적시설과 주요핵심표적에 대한 합동타격훈련 등 화약내나는 북침전쟁연습들을 광란적으로 벌리고있다.

확장억제력의 상시주둔을 운운하면서 미국은 《B－1B》전략폭격기, 《F－22》, 《F－35B》스텔스전투기를 비롯하여 핵심공중전략무기들을 투입하여 괴뢰들과 공화국을 겨냥한 련합공중훈련을 련속 감행하고있는가 하면 우리 공화국에 대한 핵선제공격을 기정사실화한 《확장억제운용연습》이란것까지 벌려놓고있다.

미국은 중지하였던 《평양점령》을 노린 《쌍룡》련합상륙훈련도 부활시켰을뿐 아니라 력대 최대수준에서 강행하고있다.

《한》미합동군사연습들에서 시행되고있는 《작전계획 5026》, 《작전계획 5027》, 《작전계획 5029》, 《작전계획 5030》, 《작전계획 5012》, 《작전계획 5015》, 《작전계획 8044》, 《작전계획 8022》, 《작전계획 8010》등이 모두 《참수작전》, 《족집게식타격》, 《평양점령》과 같은 침략적이고 도발적인 내용들을 골자로 한 극악무도한 핵전쟁각본들이라는것은 이미 공개된 비밀이다.

이처럼 미국과 괴뢰패당이 벌리는 합동군사연습들은 삼천리강토에 핵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오는 위험천만한 불장난소동이다.

《호상방위조약》이라는 예속과 굴종의 멍에를 깊숙이 쓰고 《한미동맹》이라는 간판아래 지난 수십년간 미국과 괴뢰호전광들이 벌려놓고있는 형형색색의 군사연습들로 하여 조선반도에는 항시적인 군사적긴장과 전쟁위험이 도사리고있으며 우리 민족의 자주권과 생존권은 엄중히 위협당하고있다.

현대판노예문서－《행정협정》

1966년 7월에 미국과 괴뢰당국사이에 체결된 《행정협정》은 미강점군에게는 무제한한 특권을 부여하고 인민들의 권리는 무참히 유린하고있는 현대판노예문서이다.

《행정협정》의 정식명칭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사이의 호상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미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다. 명칭에서 알수 있듯이 《행정협정》은 《호상방위조약》 제4조의 내용을 더욱 구체화한 《호상방위조약》의 부속《협정》이라고 말할수 있다. 이것을 간략화한 명칭이 《주둔군지위협정》, 영어로는 《SOFA(Status Of Forces Agreement)》이며 그보다는 흔히 《행정협정》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우고있다.

《행정협정》의 불평등성을 론하기에 앞서 먼저 이 《협정》이 왜 《호상방위조약》이후 13년만에야 체결되였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원래 《행정협정》의 모체는 1950년 7월 12일 대전에서 리승만역도와 맥아더사이에 서한형식으로 교환된 《재한미국군대의 관할권에 관한 협정》(《대전협정》)이다. 《대전협정》은 미강점군의 치외법권을 인정하여 배타적관할권을 넘겨주었을뿐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는 《한국》인을 구속할 권한까지 인정한 심히 굴욕적인 협정이였다. 당시 미국은 《전시라는 특수한 상황》이라고

하면서 미군범죄에 대하여 괴뢰들이 일체 형사재판관할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못박아놓았다.

그리하여 괴뢰들은 미제침략군의 범죄행위에 대해 아무러한 단속, 처벌권한도 행사할수 없었으며 미제야수들은 이 《협정》의 보호막속에서 인민들에 대한 살륙과 강간, 략탈만행을 꺼리낌없이 감행해나섰다.

미강점군이 이미전부터 이러한 치외법권적지위를 차지하고 무제한한 권리를 누리고있었으므로 미국은 《호상방위조약》조작이후 즉시 체결되여야 하는 《행정협정》을 맺어야 할 필요성조차 느끼지 않았고 괴뢰들의 처지에서는 상전에게 그 문제에 대해 말 한마디조차 변변히 할수도 없었다.

이러한 속에서 나물캐는 소녀를 《꿩》이라고 쏘아죽이고 송유관부근에서 놀고있던 3살 난 어린이를 《휘발유도적》이라고 총으로 쏴죽인 1957년의 군산소녀총격사건과 인천송유관어린이사살사건, 구두닦이고아소년을 도적으로 몰아 칼로 란도질하고 뻰찌로 발톱과 머리칼을 잡아뜯은 후 전신에 골탄칠을 하여 나무상자에 처넣고 못을 쳐 직승기로 실어 내던진 1958년의 부평소년직승기궤짝사건, 녀인을 강제로 병영에 끌고가 벌거벗기고 집단릉욕한 후 가죽채찍으로 마구 때리고 온몸에 뻴끼칠을 하여 거리에 내쫓은 1959년의 의정부녀인뻴끼칠사건, 미군병사들이 두명의 녀성들의 머리를 빡빡 깎아버린 동두천녀인삭발사건, 나무하는 농부를 《노루》라고 쏴죽인 1962년의 파주나무군사살사건 등 만사람의 격분을 불러일으키는 미군범죄사건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났다.

이 사건들을 계기로 인민들의 반미감정은 극도에 이르렀다.

인민들속에서 높아가는 반미기운을 무마시키기 위해 미국은 1966년 7월 괴뢰들과 《행정협정》을 체결하였다.

전문 31개 조의 본 《협정》과 《합의의사록》, 《합의량해사항》, 《교환각서》 등 부속문서로 구성된 이 《협정》은 미국과 괴뢰 량측의 교섭에 의해 작성되였다고는 하나 미국의 강박과 괴뢰들의 굴욕적자세로 하여 조약의 형식은 물론 미강점군의 시설과 구역, 지위에 관한 규정에서 너무도 일방적이고 불평등한 내용들로 일관되여있다.

《행정협정》의 불평등성은 무엇보다먼저 《협정》의 명칭에 있다.

먼저 명칭으로 볼 때 이것이 협정이냐, 조약이냐 하는 문제이다.

미국에서는 미국회 상원의 3분의 2이상의 비준동의를 얻어 체결되는것을 조약이라고 하고 대통령혼자의 권한으로 체결된것은 《행정협정》이라고 일컫는다. 미국은 1966년에 괴뢰들과 체결한 《주둔군지위협정》을 국회가 아니라 미국대통령의 비준으로 체결하였다. 그러나 괴뢰들로서는 미군이 차지한 저들의 시설과 구역에 관한것이므로 이 《법》은 《국회》의 비준동의를 얻어 체결된 정식 《조약》이다.

괴뢰국회의 승인을 받은 정식 《조약》이 미국측의 《협정》으로 통칭되는것자체가 《행정협정》이 얼마나 불평등하고 일방적인가 하는것을 똑똑히 보여준다.

《행정협정》이 안고있는 심각한 불평등성은 또한 미강점군에게 제한없는 권한을 부여하고있는데서 나타나고있다.

첫째로, 《행정협정》은 미강점군으로 하여금 괴뢰지역의 땅과 바다, 하늘의 리용에 있어서 무제한, 무기한의 특권을 부여하고있다.

《행정협정》에서는 《호상방위조약》에 따르는 미강점군의 군사기지사용구역을 무제한으로 규제해주고 미군의 증강, 철수, 타지역에서의 작전참가, 부대이동훈련, 병력장비의 배치 등에 관해 미국에만 일방적인 결정권을 부여해주었다. 이것으로 하여 미군은 괴뢰지역에서 저들이 원하는 수만큼의 병력과 무기를 인민들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마음대로 배치할수 있고 필요한만큼 기지, 시설들을 임의의 시각, 임의의 장소에 전개할수 있게 되여있다.

미국이 세계 여러 나라에 군대를 주둔시키고있고 주둔군지위협정들도 체결하고있지만 이처럼 남의 나라 땅을 마음대로 사용할 권리를 가진 곳은 없다.

둘째로, 《행정협정》은 미강점군에 대한 관세와 조세, 통신 및 공공료금할인 등에서 특혜를 주고있다.

사실 미군이 《행정협정》에 따라 받고있는 세금면제와 《출입국》자유화의 혜택은 보기 드문것이라 하지 않을수 없다. 《행정협정》에 따라 미강점군과 그 군속, 미군가족들은 저들이 보유, 사용, 이전하는 재산에 대한 세금을 거의 내지 않으며 《입출국》도 마음대로 할수 있다. 관세를 무는 경우도 거의나 찾아볼수 없다.

또한 미국의 선박, 항공기는 말할것도 없고 미국을 위해 공용으로 리용되는 모든 국적의 선박, 항공기 역시 임의의 항구, 비행장을 무료로 사용할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 괴뢰야당의원이 《국회》에 제출한 질의서에서 《행정협정》이 주둔군의 의무를 규정하고있다기보다 미군이 《한국》에서 무엇을 할수 있는가 하는 권리규정을 해놓은 《협정》이라고 개탄한것은 결코 우연치 않다.

셋째로, 《행정협정》은 형사재판권문제에서 미강점군에게 치외법권적지위를 부여하고있다.

《행정협정》 본문에는 1차적형사재판관할권을 괴뢰들이 가지도록 규정하고있으나 《협정》의 부속문서인 《합의의사록》, 《합의량해사항》, 《교환각서》에는 공무중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는 미군측이 1차재판권을 가지며 공무집행인지 아닌지 하는 여부는 미군부대의 증명서발행에 의해 판단하도록 되여있고 이 경우 괴뢰측은 형사재판권을 포기한다고 되여있다. 결국 미군당국이 공무중 범죄니 자기들이 처리하겠다고 하면 재판권이 미군측에 넘어갈수밖에 없게 되였다. 뿐만아니라 사건발생 15일이내에 괴뢰당국의 요청이 없으면 재판권은 자동적으로 미군측에 넘어간다고 규정함으로써 미군범죄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할수 없게 만들어놓았다.

《행정협정》은 미군범죄자에 대해 괴뢰측이 마음대로 구금할수 없게 규제하고있으며 괴뢰당국이 미군범죄현장에 대한 수사는 물론 범인의 도피와 증거인멸도 막을수 없게 하고있다. 가령 괴뢰당국이 미군범죄자를 구

금하더라도 미군당국이 요구하면 즉시 인도해야 하며 필요한 때만 호출할수 있도록 규정하고있다. 또한 미군범죄자가 미군시설과 령내로 도망할 경우 추적할수 없게 해놓았다.

《행정협정》에는 미군범죄라고 해도 피해보상액의 일부를 괴뢰측이 부담한다는 규정까지 있다.

《행정협정》이 얼마나 불평등하고 굴종적인가 하는 것은 미국이 다른 나라들과 맺은 행정협정과 대비해볼 때 더욱 잘 알수 있다.

미국이 일본과 맺은 주둔군지위협정에는 공무중 범죄에 대한 최종판단을 일본법관이 하게 되여있고 서도이췰란드(당시)와 체결한 협정에는 미군현행범인 경우 구속령장없이 당사국에 의한 체포와 구금이 가능하도록 되여있다. 그리고 미군시설과 구역안에서도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미군측의 동의없이도 무기를 압수하거나 구금할수 있게 규정되여있다.

이 《협정》의 불평등성으로 하여 인민들이 당하는 치욕과 고통, 수치는 이루 다 말할수 없는것이다.

미강점군의 살인, 폭행, 강탈을 비롯한 치떨리는 범죄만행들은 《행정협정》에 따라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있다.

괴뢰사회를 치욕에 몸부림치게 한 윤금이살해사건의 범죄자는 형기를 채우지 않고 가석방되여 미국으로 뻐젓이 달아나버렸으며 리태원녀종업원살인사건의 범죄자도 미군법정에서 가벼운 형벌을 받는데 그치였다.

괴뢰 전 지역을 초불시위로 들끓게 하였던 심미선,

신효순학살사건의 주범들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간살륙을 도락으로 삼는 미제침략군에게 있어서 《행정협정》은 《범죄허가증》이며 《살인면허증》이나 다름없다.

더욱 격분하지 않을수 없는것은 이 몸서리치는 만행을 저지른 극악한 살인마, 범죄자들을 처벌할 대신 오히려 《행정협정》을 빗대고 미제침략군의 범죄행위를 비호두둔하는 력대 괴뢰역적패당의 쓸개빠진 아부굴종행위이다.

그뿐이 아니다.

미군이 해마다 미친듯이 벌리는 북침핵전쟁연습과 비법적으로 끌어들인 독성물질의 살포로 하여 강토가 황폐화되고있지만 괴뢰패당은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있다.

참으로 《행정협정》은 세계에서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불평등협정이며 미국과 괴뢰들사이의 주종관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굴욕적인 협정이다.

인민들이 《행정협정은 미국의 식민지임을 립증하는 매국문서》, 《미군에 상납한 면죄부협정》, 《살인허가증》 등으로 단죄배격하면서 《협정》의 폐기와 미제침략군의 철수를 요구하여 줄기차게 투쟁하고있는것은 너무나 응당하다.

식민지예속경제, 범람하는 양키문화

미국은 《원조》, 차관, 직접투자, 시장개방 등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괴뢰경제를 미국독점자본에 복무하는 예속경제, 식민지하청경제로 전락시켰다.

미국은 우선 기만적인 《원조》를 통해 괴뢰경제에 대한 신식민주의적지배체계를 세웠다.

미국이 1961년 2월 8일 괴뢰들과 체결한 《경제 및 기술원조협정》(《신경제원조협정》)은 《원조의 효률적리용을 보장한다.》는 구실밑에 미국이 《원조》의 성격과 범위를 결정하고 《원조물자》의 소비와 판매과정을 직접 감독통제하며 괴뢰들은 이에 무조건 복종하도록 규정하였다. 미국은 이 《협정》으로 기존의 《경제원조협정》(1948. 12. 10.), 《경제조정에 관한 협정》(1952. 5. 24.), 《경제재건 및 재정안정계획에 관한 합동경제위원회 협약》(1953. 12. 14.)을 단일화하고 악명높은 《호상방위원조협정》(1950. 1. 26.)과 《호상방위조약》을 비롯한 기타 《협정》들의 효력을 재확인하였으며 괴뢰들의 재정, 경제기관들과 업체들을 미국독점자본에 종속시켰다.

예속적이고 략탈적인 《원조정책》으로 미국은 벌써 1960년대중반기에 괴뢰들의 재정예산과 금융자금의 대부분을 틀어쥐였으며 원자재공급의 70～80%, 무역의 80%를 독점하였다.

미국은 시장개방책동으로 경제적침투와 예속을 일층 심화시켰다. 1990년대초 미국은 《세계화》의 미명하에 괴뢰들을 강박하여 금융시장을 부분적으로 개방시켰으며 1990년대말에는 외환위기를 조작해내고 국제통화기금의 구제자금을 주는 대가로 여러가지 《시행령》과 《협정》들을 강요함으로써 결국은 금융시장을 완전히 개방시키고 경제의 명맥을 저들의 손아귀에 틀어쥐였다.

미국은 예속적인 《자유무역협정》을 조작하여 괴뢰들에게 식민지예속의 굴레를 더욱 깊숙이 씌웠다. 《한미자유무역협정》에서 미국의 의무조항이 7개정도에 불과한 반면에 괴뢰들이 일방적으로 지는 의무조항은 무려 55개에 달한다는 사실은 이 《협정》이 얼마나 불평등하고 굴욕적인가 하는것을 잘 말해준다.

그것으로도 부족하여 미국은 괴뢰들에게 상품시장을 더 개방하고 미국산 소고기를 더 많이 수입하도록 강요하였는가 하면 알곡시장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던 쌀시장마저 통채로 개방시키도록 하였다. 이것은 괴뢰경제를 일대 파국에 몰아넣고 민생을 도탄에 빠뜨리고있다.

미국과의 《동맹관계》의 쇠사슬에 묶이여있는 괴뢰경제는 미국경제의 부속물로 전락된 식민지경제, 하청경제의 비참한 운명에서 헤여나지 못하고있다.

미국의 독점자본들은 괴뢰경제의 골간을 이루는 상업은행들과 주요대기업들의 주식의 40～80%를 차지하고 자금관리, 설비투자, 생산, 고용 등으로 경제전반을 좌지우지하고있다. 뿐만아니라 경제침략과 략탈을 강화하여 막대한 리윤을 얻고있다.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지자

미국이 그 손실을 메꾸기 위해 괴뢰금융시장에서 단꺼번에 695억US$의 자금을 빼내감으로써 괴뢰경제를 파국에 빠뜨린 사실이 그것을 잘 말해주고있다.

해마다 미국의 독점재벌들이 괴뢰기업들로부터 배당금의 명목으로 빼앗아간 자금규모만도 무려 수백억US$에 달한다. 미국의 예속화정책으로 괴뢰경제는 자립적인 생산구조나 독자적인 순환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자본, 기술, 원료, 시장 그 어느 하나 제것이 없고 전부 남에게 의존하는 반신불수의 기형경제로 완전히 고착되였다.

미국이 괴뢰들에게 강요한 저수매가격정책과 잉여농산물강제투입으로 농업도 황폐화되여 알곡수요의 대부분을 미국에 의존하면서 미국의 배만 불리워주고있다. 외신들이 《<한국>경제는 미국에 황금알을 낳아 섬겨바치는 식민지암탉》, 《미국경제가 기침을 하면 몸살을 앓는 부실경제》라고 야유하고있는것은 결코 우연치 않다.

미군은 괴뢰사회에 썩어빠진 양키문화를 퍼뜨린 주범이다.

괴뢰사회에 범람하는 패륜패덕과 사회악이 초래한 엄청나고 심각한 파국적후과에 대해 론하기에 앞서 미강점군의 기지촌에 대해 말하지 않을수 없다.

한 괴뢰도서는 미군기지촌에 대해 이렇게 서술하였다.

《미군의 주둔은 이 땅 곳곳에 국적불명의 이방지대를 만들어놓았다. 거리와 골목엔 영어간판이 물결치고 밤이면 희한한 홀의 조명과 요란한 양음악이 백야를 이루는 곳, 화장내짙은 녀인의 유혹이 있고 그들의 육체를 흥정하는 술취한 미군들이 흥청거리는 곳, 미국도 아니

고 <한국>도 아닌 <한국>과 미국의 국경이 맞닿은 지역, 우리는 이곳을 흔히 기지촌이라 불러왔다.》

미제침략군의 강점으로부터 시작된 미군기지의 력사는 미군에 의한 양키문화전파의 력사라고도 볼수 있다.

미국식생활양식의 진렬장, 그것을 퍼뜨리는 종묘장인 미군기지에서 퍼져나온 말세기적인 양키문화는 괴뢰사회에 패륜패덕과 사회악을 만연케 하였다. 사회전반이 민족적존엄과 륜리가 짓밟히고 마약과 폭력, 패륜패덕이 판을 치는 곳으로 되였다.

괴뢰당국의 묵인하에 미군은 미군기지주변에 유곽들을 차려놓고 100만명에 달하는 녀성들을 저들의 성노리개로 만드는 천추에 용납 못할 반인권적만행도 감행하였다. 로씨야의 인터네트통신은 1945년부터 1953년사이에만도 35만명의 《한국》녀성들이, 1962년에는 2만명이상의 녀성들이 미군의 성노예로 되였으며 1945년부터 미강점군에 끌려간 성노예의 수가 100만명에 달하였다고 폭로하였다.

양키문화의 전파는 괴뢰사회에 만연된 마약의 복용과 밀매, 류포행위를 통해서도 잘 알수 있다. 미강점군은 오래전부터 아무런 제한도 받지 않고 마약을 끌어들이고 그것을 마구 사용하면서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각종 범죄행위를 수없이 감행하여왔다. 미제침략군의 마약복용과 밀매현상은 청소년들속에 급격히 파급되여 사회적으로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있다.

이러한 현실을 두고 괴뢰지역의 한 정치인은 《청소년들사이에 류행하는 흥분제복용도 주<한>미군들의 영향

탓》이라고 하면서 마약의 마수는 심각한 사회적문제를 낳는다고 지적하였다. 2013년에 미군군사우편을 통하여 들여오다가 발각된 마약량만 해도 수만명에게 투여할수 있는 수kg에 달하였다.

미국의 강점으로 괴뢰지역은 썩어빠진 양키문화가 범람하고 민족문화가 말살된 문화식민지로 화하였다.

민족주체의식과 자주정신을 마비시키고 민족문화를 말살하는것은 제국주의자들의 식민주의정책의 주되는 수법이다. 미군이 강점한 때로부터 정치사회관계로부터 사람들의 사고방식, 생활양식에 이르기까지 민족문화, 고유한 미풍량속은 여지없이 말살되고 민족적인것은 물먹은 흙담처럼 무너져내렸다.

그 대표적인 실례가 조선민족의 고유한 언어가 사라져가고 외래어와 잡탕말이 범람하는것이다. 외래어는 괴뢰사회의 모든 분야에 범람하고있다.

이것은 한 괴뢰신문이 《이젠 정말 듣기조차 지겨울 정도다. 꼬부랑말 안쓰면 대화가 통하지 않기라도 하는지… 사대주의에 푹 빠져 외국말로 지껄이는 꼴이란 정말 가관이다. 세계화만 줴치며 영어가 구세주라도 되는듯이 떠벌이는 인간들이 많다. 외국것이라면 눈에 불을 켜고 따르려 하니 정말 문제다.》라고 개탄한 사실과 도이췰란드의 한 신문기자가 《현재 <한국>문화는 국제문화의 쓰레기통이다.》라고 비난한 사실들을 통해서도 더욱 뚜렷이 확증할수 있다.

세상사람들이 공인하는 민족의 우수한 말과 글을 가지고있으면서도 사회전반이 《영어식민지》, 《민족어페

허지대》로 화한 기막힌 현실은 미국의 민족문화말살책동의 대표적산물이다.

이렇듯 우리 말과 글이 사멸직전에 이르게 된 주되는 원인은 미제의 식민지예속화정책과 함께 친미사대에 환장한 괴뢰역적패당이 영어사용을 《정책화》하고 사회전반에 외래어사용풍조를 강요하고 조장시킨데 있다.

윤석열역도 역시 추악한 《영어사대주의자》이다.

이자가 얼마나 친미에 환장하였는가 하는것은 조선말보다 영어에 더 애착을 느끼고 사람들앞에서 영어를 섞은 잡탕말을 밥먹듯하는데서도 알수 있다. 역도는 기자들앞에서 《선제타격은 평화와 안보에 매우 중요한 우리의 애티튜드》라고 했는가 하면 미국언론앞에서는 《대통령실》을 《피플스 하우스》라고 제멋대로 지어부르고 심지어 《국립추모공원》이라고 부르면 영 촌스럽고 《내셔널 메모리얼 파크》라고 불러야 멋이 있다고 지껄여 사람들을 아연케 했다. 또 《법무부 공무원》은 《거버먼트 어토니》로, 《국제표준》은 《글로벌 스탠더드》, 《소통》은 《커무니케이션》, 《인적자본》은 《휴먼 캐피털》, 《가족사업》은 《패밀리 비즈니스》라고 씨벌거려 사람들로부터 《저급한 단어》를 쓴다는 비난을 받았다.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한다는 미명하에 2023년 4월 미국에 건너가 미의회에서 영어로 연설하고 백악관에 가서는 상전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미국노래까지 부르는 쓸개빠진짓도 서슴지 않는것이 바로 특등친미사대매국노 윤석열역도이다.

친미에 환장한 이런자들때문에 오늘 괴뢰지역에서 고유한 조선말과 함께 우리 민족문화, 미풍량속도 서서히 사라져가고있다.

미국은 괴뢰지역을 저들의 영원한 식민지로 만들기 위하여 온갖 기구와 수단과 방법들을 다 동원하여 사상문화적지배를 실현하고있다. 미국은 강점 첫날부터 《미국제교류처》, 《문화교류위원회》, 《미교육위원단》 등 각종 기구들을 설치하고 썩어빠진 미국문화와 숭미, 공미사상, 종미사대의식을 퍼뜨렸다. 또 《문화교류》의 명목으로 해마다 괴뢰지역의 문화인, 교육자를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을 미국에 끌어들여 미국식교육과 양키문화를 주입시키고있으며 《국제장학프로그람》, 《인터내셔널 프로그람》, 《한미클럽》 등을 통해 《국회》와 《정부》, 언론기관, 교육기관 등 사회의 곳곳에 깊숙이 침투하여 미국을 신봉하게 만들고 대미굴종의식으로 세뇌시키는 등으로 사상문화적지배를 강화하였다.

미국은 《사절단》, 《평화봉사단》 등을 통해 학술토론회니, 공동연구니 하는것들도 자주 벌려놓고 미국의 침략사를 《우호》와 《친선》의 력사로 분칠하고있으며 류학, 려행, 연수 등의 명목으로 괴뢰지역의 청년학생, 지식인들을 미국에 끌어가 숭미사대의식으로 철저히 세뇌시키고는 저들의 사상문화침투의 돌격대로 내세우고있다. 또한 괴뢰지역의 곳곳에 퇴폐적인 양키문화, 미국식생활양식을 설교하는 출판물, 선전물들을 퍼뜨리고있는것과 함께 숭미사상과 미국식생활양식을 전파하는데서 영화가 아주 효과적이라고 떠들면서 썩어빠진 저들의

문화를 담은 미국영화들을 들이밀고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오랜 세월 미제침략군의 구두발밑에서 참을수 없는 민족적멸시와 모욕을 당하면서도 응당한 민족적분노를 일으키지 못하고 《북의 남침으로부터 자유세계수호》라는 파렴치한 악선전에 아직까지 기만당하고있는것도 미국이 불어넣은 숭미공미사상에 사로잡힌데 있다.

미국이 70여년세월 민족문화를 철저히 말살하고 사람들에게 사대굴종의식과 노예순종사상을 부식시킴으로써 수많은 인민들이 민족적자존심도, 넋도, 존엄도 잃어버린 식민지노예로 전락되고말았다.

침략자, 강점자에 의한 강토의 황폐화

지난 70여년세월 미제침략군은 괴뢰지역의 땅과 강, 바다를 독극물로 오염시켜 강토를 황폐화하고 생태환경을 파괴하였으며 인민들에게 헤아릴수 없는 정신육체적 고통과 물질적피해를 들씌웠다.

오늘날 환경오염은 지구의 운명과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적문제로 떠오르고있다. 미강점군이 지난 수십여년간 감행한 환경파괴범죄는 상상을 초월한다.

미군기지로 인하여 빼앗긴 땅의 크기는 수자상으로 계산할수 있지만 강점군에 의해 무참히 파괴되고 손상된 땅과 재부, 그로 하여 인민들이 당한 정신적, 물질적피해는 수자로 계산할수 없는것이며 그 무엇으로써도 보상할수 없다. 미군이 차지한 땅과 강, 주변지역들은 오늘날 인민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생태환경파괴의 온상으로, 불모의 땅으로 되여버렸다.

서울 한복판의 80여만평 부지를 차지하고있던 룡산미군기지구역은 본래 공기가 신선하고 아카시아꽃향기가 짙게 풍기기로 이름난 곳이였다. 여기에 주둔하고있던 미군은 각종 유독성기름과 발암성물질들을 무단으로 류출하여 절반이상의 부지를 심하게 오염시켜놓았다. 2000년 2월 룡산 미8군기지에서 근 500개의 병에 담겨져있던 독

성물질인 포름알데히드용액이 별도의 정화시설이 없는 룡산미군기지의 하수구를 지나 한강으로 흘러들어갔다는 사실이 공개되여 많은 사람들을 경악케 했다. 차숟가락으로 두개만 마셔도 사람이 즉사하는 독극물을 수백L나 한강에 흘러보낼것을 지시한 장본인인 미군관계자는 사건이 터진 후 미군기지내로 이사하여 괴뢰검찰이 조사조차 하지 못했다.

2003년 5월에도 룡산미군기지 남쪽에서 흐르는 지하수의 오염이 미군기지에서 쓰는 항공유에 의한것이라는것이 밝혀졌으나 당시 미군측은 이것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다. 1990년부터 2015년까지 룡산미군기지에서만도 84건의 크고작은 기름류출사건이 있었지만 괴뢰당국이 미군측으로부터 확인한 사건은 불과 5건에 불과했다.

지난 2022년 윤석열괴뢰역도가 《대통령》사무실을 청와대에서 룡산에 있던 《국방부》청사로 옮기면서 미군기지오염정화문제가 다시 여론의 도마우에 올랐다.

지난 2021년에 《환경공단》이 미군과 합동하여 지금 역도가 틀고앉아있는 룡산의 《대통령실》주변의 미군기지에 대한 환경조사를 진행한데 의하면 석유화합물은 기준치의 36배, 아연, 비소를 비롯한 중금속과 독성물질들은 기준치의 수십배가 검출되였다. 하여 괴뢰당국은 사람들이 해당 지역에서 하루 2시간이상 머물지 말것을 통보하기까지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역도는 오염정화는 하지도 않은 이 지역의 수십만㎡의 땅에 흙이나 대충 덮어놓고 잔디와 나무나 몇그루 심어놓고는 《어린이정원》이라는

명칭으로 개방하였다. 어린이들마저 미군에 의한 환경오염피해를 받게 하려는 역도의 이러한 처사를 두고 환경단체들과 야당인사들은 《오염토양정화과정없이 흙덮고 꽃심어 어린이를 초대한다는것은 어린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무시하는것》, 《<대통령실>졸속이전도 모자라 졸속토양오염정화를 통해 아이들 건강을 담보로 정치쇼를 하고있다.》, 《흙으로 미군의 환경범죄까지 덮으려는 처사》라고 강력히 반발하였다.

원래 침략기지와 환경보호는 량립될수 없다. 미제침략군에게 있어서 강점지역은 보호의 의무가 없는 파괴의 대상일뿐이다.

2000년대초 괴뢰당국이 초보적으로 조사한데 의하더라도 미군기지 거의 전부가 각종 유독성물질에 심히 오염되여있었다.

엄중한것은 환경오염이 비단 미군기지안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것이다. 미군기지가 수십년간 꾸역꾸역 토해내는 거대한 오물들은 주변의 농토와 산, 강하천과 바다를 처참하게 오염시키고있다.

경기도 평택시와 군산시만 보더라도 미군기지들에서 내보내는 다량의 기름으로 하여 기지는 물론 주변의 논밭들이 기름덩어리가 나딩굴 정도로 오염되여 농사는커녕 풀 한포기 자랄수 없게 되였다.

한강, 림진강, 섬강, 금호강 등을 비롯하여 미군기지가 도사리고있는 주변의 강하천물은 생활용수로 리용할수 없게 되였고 조선서해안일대가 미군이 버린 각종 폐유와 화학물질, 중금속들에 의해 어로작업을 할수 없

을 정도로 오염되였다.

미군기지로 인한 강토의 황폐화와 함께 더욱더 심각한것은 그 땅에서 살고있는 사람들이 당하는 억울한 고통이다.

1960년대말 미제침략군은 《식물통제계획 1968》이라는 비밀작전계획을 세우고 괴뢰군을 내몰아 군사분계선전역에 8만L에 달하는 고엽제를 대량살포하여 비무장지대를 독해물로 오염시키였다. 1968년 5월부터 1970년대초까지 진행된 고엽제살포시 미8군 화학부대놈들은 직승기를 타고 지휘감독하면서 2만 6 000여명의 괴뢰군사병들을 내몰아 맨손으로 고엽제를 철갑모에 담아 뿌리게 하였다. 하여 고엽제를 뿌린 지역은 독극물에 오염되여 식물이 자라지 못하는 불모의 땅으로 변하고 당시 고엽제살포에 내몰리였던 많은 괴뢰군사병들이 오늘까지도 그 후유증으로 하여 고통받고있다.

경기도 화성시 매향리는 매향리라는 본래 이름보다도 《쿠니사격장》이라는 명칭으로, 미군비행기들의 폭탄투하연습장으로 더 잘 알려진 곳이였다. 1951년부터 하루평균 13시간이상, 1년 내내 거의 매일과 같이 벌어지는 미공군의 계속되는 폭탄투하훈련으로 하여 매향리앞바다에 있는 롱섬은 15m나 낮아져 아예 형체도 가려볼수 없게 되였으며 700여만평의 농경지와 주변어장은 황폐화되여버렸다. 미국은 매향리를 두고 《아시아에서는 최고훈련장》이라고 떠벌이며 괴뢰지역강점 미공군은 물론 일본과 괌도, 타이를 비롯한 아시아주둔 미공군비행기들까지 끌어들여 폭격훈련을 미친듯이 벌리였다.

이로 하여 매향리에서 살던 사람들이 당한 피해와 고통은 과연 어떤것이였던가. 지붕에 닿을듯 아슬아슬하게 저공비행을 하면서 각종 폭탄을 내던져 터뜨리고 기관포를 쏘아대는 폭격훈련으로 매향리주민들은 귀청이 찢어지고 심장이 터질것만 같은 고통에 시달려야만 했다. 오폭과 불발탄으로 마을사람 십여명이 죽고 수십명이 부상당했으며 폭격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여 수십명이 자살했다. 집벽체에 금이 가고 지붕이 내려앉는것은 부지기수이고 굉음에 시달리다 죽어나간 가축들로 인한 경제적인 피해는 가늠조차 할수 없었다.

매향리사격장이 비록 2005년에 페쇄되였다고는 하지만 미군폭격훈련으로 산생된 불행과 고통은 아직까지도 이곳 인민들의 가슴속에 응어리로 남아있다.

미군때문에 당하고있는 형언할수 없는 고통에 대해 한 언론은 이렇게 전하였다.

《경기도 포천시 영평사격장주변에서 사는 한 주민은 <매일 밤 누가 문을 두드리는것같은 소리에 놀라 한잠도 자지 못한다. 미군직승기가 손에 잡힐듯이 지나가고 밤새 총포소리가 울린다.>고 말하였다.

미군비행기들의 저공비행으로 기와장이 모두 날아나버렸다. 위생실의 타일이 떨어져나가고 학교의 녀교원들은 미군의 폭격연습으로 인한 소음때문에 불안과 공포에 떨며 울면서 수업을 한다.》

춘천시주민들도 도시중심에 자리잡고있는 미공군기지로 인해 심한 정신분렬증과 호흡기질환 등을 앓고있으며 경기도 오산의 미공군기지주변의 주민들도 소음으로 인

한 정신장애와 심장병, 환각증으로 고통을 당하고있다.

미군이 오염시킨 지하수를 마신것으로 하여 주민들의 건강도 파괴되고있다. 미군송유관이 부설된 지역의 지하수를 마신 주민들은 평균 3세대당 1명이 암 등 각종 질병에 걸려 억울하게 목숨을 잃었다.

2003년 1월 시민단체인 《대인지뢰대책회의》는 이전 미군기지와 시설들이 있던 지역의 환경오염실태를 조사하던 과정에 미군이 기지주변에 매설하였던 숱한 지뢰를 제거하지 않고 철수하였을뿐 아니라 그 정보조차도 알리지 않아 100여명의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범죄내막을 밝혀내고 진상을 고발하였다.

미강점군은 심지어 생물무기실험까지 벌리면서 인민들에게 재앙을 들씌우고있다.

미국은 미군기지들과 그 주변에 세균연구소들을 설치해놓고 치사률이 높은 악성전염병을 퍼뜨리는 세균무기실험을 감행해왔으며 2원화학무기, 고엽제를 비롯한 화학무기와 유독성화학물질들을 대량반입하고 주민들을 그 효과성을 검증하는 대상으로 삼아왔다.

미제는 1976년 일본 가나가와현에 주둔해있는 미륙군세균무기연구소 406부대소속 미생물연구소 분견대를 끌어들여 고려대학교와 경희대학교 등에 세균연구소들을 설치해놓고 인민들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치사률이 높은 악성전염병인 류행성출혈열세균무기실험을 하면서 그 살상효과를 검증하였다. 결과 전라남도 완도군과 신안군에서 1 200여명, 전라남도 령암군에서 180여명, 남강원도 평창군에서 270여명의 중학생들이 모진 고통속에 생죽

음을 당하였다. 미제침략군이 퍼뜨린 류행성출혈열병원체가 당시 거의 모든 농촌지역들에 급속히 전파되여 수많은 학교들에서 수업을 중지하고 문을 닫아매는 사태들이 련이어 벌어진것은 물론 불과 1년동안에 2만여명이 사망하는 참변을 초래하였다.

2015년에는 미국이 저들의 군사기지들에 살아있는 탄저균까지 들여와 실험한 사실이 밝혀졌다. 미제침략군이 살상력이 95%에 달하여 일명 《공포의 백색가루》라고 불리우는 위험천만한 살인무기인 탄저균을 몰래 끌어들여 주민들을 대상으로 생체실험까지 암암리에 감행한것은 우리 민족뿐 아니라 전 인류에게 또다시 헤아릴수 없는 재난과 고통을 들씌우려는 천추에 용납 못할 반인륜적범죄행위이다. 하기에 신문 《한겨레》는 사설에서 《미군의 탄저균밀반입과 실험은 생물무기금지조약에 위반되며 나아가 전쟁범죄에 해당된다.》고 준렬히 단죄하였다.

2016년과 2017년에도 미국은 일명 《쥬피터계획》이라는 대호를 달고 살아있는 탄저균 등을 리용한 생화학실험을 계속 진행하였으며 2018년에는 평택미군기지에 추가로 《쥬피터계획》시설을 도입하였다.

미강점군이 이런 위험한 짓거리를 아무런 제한도 받음이 없이 공공연히 벌려놓을수 있게 하는것이 바로 《행정협정》이다. 거기에는 《명령에 따라 <한국>에 입국하는 미군구성원, 봉인이 있는 미국군사우편, 미군에 탁송되는 군사화물은 세관검사를 하지 않는다.》는 독소조항이 쪼아박혀있다. 《행정협정》을 리용하여 미국은

탄저균을 비밀리에 반입하였고 괴뢰들은 상전의 범죄행위를 비호두둔해나선것이다.

미군의 조직적인 환경파괴범죄행위가 공공연히 감행되게 된것은 또한 《행정협정》 3조 1항에 의해 미군이 사용한 시설이나 땅을 반환할 경우 원상회복의 의무가 없기때문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행정협정》은 미군의 환경오염과 세균전훈련을 합법화시키는 《협정》이라고 할수 있다.

인민들의 투쟁에 의해 환경오염에 대한 내용이 2001년에 개정된 《행정협정》에 반영되였다고는 하지만 빛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 당시 합의한 환경보호에 관한 량해각서에 《주<한>미군은 <한국정부>의 환경법령 및 기준을 존중한다.》라고 명시했으나 명시만 되였을뿐 《행정협정》 4조 1항의 《원상복구의 의무가 없다.》라는 내용과 환경량해각서의 《키세(KISE: Known, Imminent, Substantial, Endangerment to Human health 인간건강에 대해 알려진, 림박한, 실질적인, 급박한 위험)》조항을 근거로 미군은 기지오염정화의 책임을 회피하고있다. 《키세》조항의 경우 《키세》라는 기준자체가 주관적기준이기때문에 오염상태에 대해 검증하기가 어렵다. 독성물질이 나와도 미군이 《키세》기준에 해당 안된다고 하면 아닌것으로 된다.

이렇듯 미군이 도사리고있는 모든 곳에서 강토가 황폐화되고 사람들의 생존이 위협당하는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분렬로 인한 고통의 무게를 수량화하는것은 계산

으로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무한대의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민족의 분렬과 직접 련관이 있는 미국의 군대가 금수강산 방방곡곡에 그들의 군화발로 민족의 자존을 짓밟고있는 고통의 무게를 헤아린다는 그자체가 하나의 고통일뿐이다.》

이것은 어느한 학자의 심중의 토로이다. 그의 이 말처럼 미군이 감행한 환경파괴와 그로 인한 피해를 과연 어떻게 계산하며 무엇으로 보상할수 있겠는가.

고혈을 빨아먹는 흡혈귀무리

미강점군은 《동맹》이라는 허울좋은 간판밑에서 지난 70여년세월 인민들의 고혈을 악착스럽게 빨아먹은 흡혈귀무리이기도 하다.

미군정시기와 조선전쟁시기는 더 말할것도 없고 《호상방위조약》체결이후에도 미군은 군사기지라는 명목하에 토지를 무상으로 빼앗아 공짜로 리용해오고있다. 필리핀과 일본의 오끼나와를 비롯해서 다른 나라에 주둔한 미군이 토지사용료를 해당 나라에 지불하는것과 대비해볼 때 수백㎢에 달하는 미군사기지의 토지사용료만 계산해보아도 미군은 해마다 천문학적액수의 돈을 괴뢰당국으로부터 간접적으로 지원받는것으로 된다.

전기료금 하나만 놓고보아도 미군이 받는 특혜가 어느 정도인가 하는것을 잘 알수 있다.

1962년에 체결된 미국정부와 《한국전력공사》사이의 계약서에 따르면 전기료금과 료금률이 《한국법령》에 따라 변경될 경우 본 계약에 명시된 료금률을 조정할수 있다고 명시되여있다. 하지만 지난 수십년세월 괴뢰당국은 《행정협정》규정때문에 미군의 전기료금을 올릴수 없다고 하면서 미군에 눅은 값으로 전기를 계속 공급하여왔다. 2022년에만 해도 미군은 일반전기료금보다 근 20% 눅은 값으로 전기를 사용하면서 그나마 제때에 료금을

지불하지도 않았다. 결과적으로 볼 때 미강점군의 1인당전기사용량은 괴뢰군 1인당전기사용량의 10배에 달한다고 한다.

각종 공공료금과 세금의 감면, 도로, 항만리용료 면제 등의 《혜택》을 돈으로 환산하면 미강점군은 년평균 20억US$의 특혜지원을 받는것으로 된다. 실제적으로 1987년에 괴뢰당국이 미군에 직, 간접적으로 지원한 비용을 계산해본데 의하면 19억 600만US$에 달하였다고 한다. 1990년에도 미국은 룡산미군기지이전비용을 괴뢰당국이 부담할것을 강박하여 관철시키였으며 반환되는 미군기지의 오염정화비도 대부분 괴뢰들이 울며 겨자먹기로 대지 않으면 안되였다고 한다.

괴뢰들에게서 더 많은 돈을 빨아내기 위한 미국의 술책은 이뿐이 아니였다.

1966년에 체결된 《행정협정》의 제5조 1항에는 《미합중국 군대의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는 미합중국이 부담한다.》고 되여있다.

1989년부터 괴뢰들에게서 미군유지비명목으로 야금야금 돈을 옭아내기 시작한 미국은 이 조항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1991년 2월에 괴뢰들을 강박하여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사이의 호상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미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사이의 협정》(제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이라는것을 체결하였다.

이 《협정》에는 《<한국>은 주<한>미군의 <한국>

인로동자고용을 위한 경비를 부담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다른 경비를 부담》하며 《<한국>은 매 회계년도마다 부담할 경비의 실제액수를 결정하여 이를 신속히 미합중국에 통고한다.》는 굴종적내용이 포함되여있었다. 이때로부터 인민들의 피땀으로 이루어진 천문학적액수의 혈세가 해마다 《방위비분담금》이라는 명목으로 미군에 섬겨바쳐지고있다.

미군이 주둔하는 일부 나라들에서 《방위비분담금》을 낸다고는 하지만 해마다 수억US$씩 바치는 《방위비분담금》은 지나치게 많은것이다. 1995년도의 《방위비분담금》을 국내총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률로 계산해보면 일본에 비해서는 4.2배, 도이췰란드에 비해서는 6.8배에 달한 사실이 이를 말해주고있다.

지금까지 미국과 괴뢰들사이에 11차례에 걸쳐 《방위비분담금》협상이 진행되였으며 협상때마다 미국은 한푼이라도 더 받아내려고 괴뢰들에게 압력을 가하여왔다. 《방위비분담금》은 협상이 결속될 때마다 굴러가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불어나 2009년에 6억 9천만US$, 2014년에 8억 1 416만US$, 2019년에 9억 1 890만US$로 늘어났다.

2019년에 미국은 다음해 《방위비분담금》액수를 놓고 괴뢰들과 협상하면서 그해 《방위비분담금》의 5배를 넘는 50억US$를 내라고 괴뢰들을 강박하기까지 했다. 심지어 미국은 《한국》인로동자들의 인건비,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등의 명목외에 핵항공모함, 핵잠수함, 핵전략폭격기 등 전략자산의 조선반도전개비용, 미군의 순환

배치비용, 미군병사들의 인건비까지 괴뢰들이 내야 한다고 을러멨다.

이를 두고 한 괴뢰언론은 《주<한>미군인건비를 포함한 미군주둔비용전체를 내라는 미국요구대로라면 <방위비분담특별협정>협상의 성격은 <방위비분담금>협상이 아니라 <방위비부담금>협상이 된다.》고 개탄했다.

하지만 미국은 협상이 저들의 요구대로 타결되지 않으면 미군기지에서 일하는 《한국》인로동자 9천여명을 강제무급휴가를 보내겠다고 위협했는가 하면 미국을 《하느님》처럼 받드는 친미사대매국세력을 자극할 목적으로 《미군철수》를 운운하기까지 했다.

사실 미국놈들이 미강점군이 마치 괴뢰지역의 《방위》를 위해 존재하는것처럼 여론을 오도하면서 저들의 비위에 맞지 않으면 《미군철수》를 운운하는것은 어불성설이다. 한 대학교수는 《미국은 동북아시아지역에서 중국과 로씨야를 견제하며 패권을 유지하고 무역을 통해 자국의 경제적인 리익을 얻기 위해 주<한>미군을 유지하고있다.》고 폭로하였으며 미군의 인터네트홈페지에도 미국 전체 교역량의 35%를 차지하고 한해동안에 수천억 US$를 벌어들이는 동북아시아지역을 방위하기 위해 미군이 《한국》을 비롯한 동북아시아지역에 주둔한다고 적혀있다.

미군의 강점이 누구의 목적과 리익실현을 위한것이라는것을 뻔히 알고있으면서도 력대 괴뢰통치배들은 저들의 권력안보를 유지하기 위해 천문학적액수의 돈을 해마다 더 많이 내라고 강박하는 미국의 요구에 순순히 응

하여왔다. 하여 해마다 2.5～20%의 증가률로 《방위비분담금》은 계속 불어나고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인민들에게 가닿고있다.

2020년에 괴뢰당국자들은 그해에 지불할 《방위비분담금》액수가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7 000여억원이 넘는 돈을 먼저 미국에 섬겨바치였다. 다음해 3월에야 미국과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을 체결한 괴뢰들은 2020년 《방위비분담금》으로 1조 389억원을 지불하기로 합의했다고 하면서 7 000여억원의 돈을 또 지불하였다.

결국 2020년의 《방위비분담금》명목으로 두번에 걸쳐 미국이 빼앗아간 돈은 문서상으로 합의된 1조 389억원이 아니라 실지로는 근 1조 5 000억에 이르며 이렇게 그해에만 4 000여억원에 달하는 돈이 미국에 더 지불되였다. 천문학적액수의 그 돈이 인민들의 고혈로 이루어졌다는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미강점군은 이렇게 빼앗아낸 돈을 이리저리 굴려 엄청난 액수의 리자를 받아먹는 《리자놀이》까지 벌리면서 제 배를 불리고있다.

괴뢰패당이 섬겨바치는 막대한 미군유지비로 미군은 미군유지와 직접적련관이 없는 박물관이나 식당건설, 호텔직원들의 생활비 등으로 제멋대로 써버렸다고 한다. 그렇게 하고도 《방위비분담금》에서 남는 량은 해마다 2 000억～3 000억원에 달하는데 미군은 이렇게 남는 돈을 자국의 상업은행이나 괴뢰은행들에 예금해놓고 리자소득까지 얻고있다고 한다. 이 소득이 2002년부터 2015년사이 기간에만도 괴뢰화폐로 3 000억원이 훨씬 넘었다고

한다. 미군은 2019년에는 경기도 오산과 평택기지건설비용으로 쓰고 남아있던 돈을 전부 딸라로 바꾸어 미국재무부로 송금하였다. 또한 미국이 괴뢰들이 내는 《방위비분담금》을 일본에 주둔하고있는 미군의 군사장비들을 정비하는데 탕진한 사실도 드러났다.

괴뢰언론들이 미국과 괴뢰들간에 진행되는 방위비협상을 두고 《미군을 위한 방위비협박》이며 《일방적인 략탈》이라고 하는데는 이처럼 그럴만한 리유가 있는것이다.

미군이 이처럼 뻔뻔스럽게 놀아대고있는데는 괴뢰당국의 비굴한 태도도 한몫하고있다.

《방위비분담금》을 가지고 리자놀음을 하는것은 명백히 《행정협정》 7조의 위반이며 리자소득을 얻고도 세금을 내지 않았기때문에 탈세행위에 해당되기도 한다.

하지만 괴뢰당국은 《일단 미국손에 들어온것은 미국돈》이라는 미국측의 오만한 자세에 눌리워 입 한번 뻥끗하지 못하고있으며 위법행위를 보고도 못본척하고있다.

이렇게 《방위비분담금》의 명목으로 천문학적액수의 혈세를 짜내고 남아돌아가는 돈으로 변놓이까지 해가며 풍청거리면서도 더 많은 돈을 빼앗아내려고 후안무치하게 놀아대는 미국의 강도적처사에 대해 대꾸는커녕 코꿰인 송아지마냥 졸졸 끌려다녀야 하는것이 괴뢰당국의 기막힌 처지이다.

미국은 식민지노복의 마지막 피 한방울까지 악착스럽게 짜내고 괴뢰들은 인민들의 고혈로 이루어진 돈을

달라는대로 무한정 섬겨바쳐야만 하는것이 바로 《한미동맹》의 진면모이다.

더욱 추악하게 《진화》하는 《동맹》

미국이 괴뢰지역에 침략의 군화발을 들여놓은 때로부터 오랜 세월이 흐르고 세계는 크게 변화되였다. 자주를 지향하는것은 오늘의 세계적추세로 되였다. 나라들사이에 자주권존중, 평등과 호혜가 대세의 흐름으로 되고있는 21세기 문명시대에 와서도 괴뢰들은 미국과의 불평등한 《동맹》관계에 매달려 추악한 잔명을 부지하려 하고있다.

특히 윤석열역도는 선행독재자들도 무색케 할 친미사대매국책동에 매달리고있다.

괴뢰대통령선거당시 윤석열역도는 《한미포괄적전략동맹》을 회복하겠다고 줴치면서 미국무성 동아시아태평양차관보, 전 미국 부대통령 등 미행정부의 전, 현직 고위관리들을 만나 별의별 노죽을 다 부렸다.

그리고 가까스로 권력의 자리를 차지한 후에는 《한미안보동맹이 발전의 원동력이 됐다.》, 《굳건한 한미관계를 재건하겠다.》고 하면서 미국상전에게 아부하였다.

윤석열역도의 친미사대추태는 2022년 5월 미국집권자의 괴뢰지역행각시 극도에 달했다.

역도는 그 무슨 《영접행사》라는데서 미국국가가 연주되자 상전의 본을 그대로 따라 성조기를 향해 가슴에 손을 얹는 도깨비짓도 서슴지 않았고 미국집권자와

마주앉아서는 미국의 확장억제력제공과 《한미확장억제전략협의체》의 재가동, 《한》미합동군사연습의 규모확대, 미전략자산의 괴뢰지역전개에 대해 모의하였다. 미국집권자는 《한미동맹》은 《안보동맹》으로부터 《가치동맹》, 《경제동맹》으로 한단계 격상될것이라고 하면서 주구의 등을 두드려주었다.

미국집권자가 운운한 《가치동맹》이란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과 세계제패전략실현에 괴뢰들을 돌격대로 내세우려는 음흉한 기도를 화려한 보자기로 감싼것이다.

2022년 6월 미국무성은 홈페지를 통해 현 미국대통령의 집권기간에 추진할 대외정책인 《통합국가전략》(조선반도편)이라는것을 발표하였다. 문건에는 괴뢰들을 미국주도의 새로운 국제질서구축에 돌격대로 내세우고 미국주도의 새로운 공급망구축에 괴뢰들을 깊숙이 끌어들이는 문제와 미국이 추구하는 《국제규범과 기준》에 괴뢰들을 복종시키는 문제 등 미국의 가치관에 따라 괴뢰들을 다루어나갈 세부적인 《행동방향》들이 담겨져있다.

이러한 《행동방향》에 따라 미국은 지난 2022년 6월 에스빠냐에서 진행된 나토수뇌자회의에 윤석열역도를 참가시키는것을 통해 저들의 세계제패전략실현에 괴뢰들을 더욱 깊숙이 끌어들이였다.

이를 두고 괴뢰언론들은 《미국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동맹국인 <한국>, 일본, 오스트랄리아, 뉴질랜드정상을 <초청>하여 나토동맹과 <태평양동맹>을 하나로 련결시켰다. 미국을 꼭지점으로 하는 유럽과 아시아동맹국들

의 반로반중반북동맹련합이 구축된것이다. 이로써 세계적인 신랭전동맹이 완성되였다.》라고 평하였다.

친미주구인 윤석열역도는 나토수뇌자회의연단에서 《국제사회에서 력량을 갖춘 <나라>로서 더 큰 책임을 다할것이다.》느니, 《나토와의 협력관계가 보편적가치와 규범을 수호하는 련대의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느니 하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미국의 패권전략실현의 돌격대로 기꺼이 나설 추악한 흉심을 그대로 드러냈다.

윤석열역도는 미국이 강요하는 《가치동맹》에 코가 꿰여 일본과의 정치군사적결탁을 강화하는 친일매국망동도 서슴지 않고있다.

역도는 《한미일3각군사동맹》을 조작하려는 미국에 추종하여 《자유민주주의가치관을 공유하는 일본》과의 관계개선이 불가피하다고 뇌까리면서 일제강제징용피해자문제를 비롯하여 일본이 우리 민족에게 저지른 만고죄악을 무마시켜주고 사무라이후예들을 끌어들여 공화국을 겨냥한 합동군사연습을 벌리는 등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여지없이 짓밟고있다.

하기에 괴뢰언론들은 《<정부>는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가치>에 기반한 외교를 하겠다며 미국, 일본만을 쳐다보더니 급기야 <편>까지 가르면서 홀로 <가치외교>의 함정에 빠져들고있다. 이것이 과연 <국익>에 부합한것인지, <정부>의 <리상>을 실현하기 위한것인지 묻지 않을수 없다.》, 《<정부>가 미국이 밀어서 <완장>차고 돌격대로 나섰는데 뒤돌아보니 미국도 없고 일본도 없다.》고 개탄하였다.

미국과 윤석열역적패당이 불어대는 《안보동맹》으로부터 격상된 《가치동맹》이란 명백히 미국의 가치와 리익, 세계를 제패하려는 미국의 야망실현을 위해 괴뢰들이 저들의 모든것을 다 섬겨바치고 주변나라들과도 척을 져야만 하는 《굴종동맹》, 《총알받이동맹》이라는것을 여실히 증명해주고있다.

미국과 괴뢰들이 떠드는 《경제동맹》이라는것도 미국상전에게 괴뢰경제의 주권과 리익을 송두리채 섬겨바치는 매국행위를 감싸기 위한 면사포에 불과하다.

2022년 5월에 윤석열역도는 《한미동맹》도 경제안보시대에 맞추어 《진화》해야 한다고 하면서 반도체, 축전지, 자동차 등 전략산업분야에서 호상투자를 확대하고 공급망안정화를 위해 미국에 적극 협력해나갈것이라고 줴쳤다. 이러한 속에 괴뢰지역을 행각한 미국집권자는 대기업의 우두머리들을 만나 미국에 대한 투자를 강요하여 수백억US$가 넘는 투자를 확답받는 등 커다란 경제적실리를 따내였다.

윤석열역적패당의 친미사대매국행위와 식민지의 마지막 피 한방울까지 빨아먹으려는 미국의 탐욕때문에 결국 괴뢰들은 《경제동맹》이라는 허울좋은 표현과 종이장에 불과한 《안보약속》을 보장받았고 대신 미국은 막대한 현금투자라는 돈방석우에 올라앉은것이다.

최근 미국은 세계적판도에서 군사적패권은 물론 경제적패권까지 거머쥐기 위해 미국내의 반도체생산기지를 확대하는 한편 세계반도체공급망재편을 추진하고있다. 그러한 책동의 일환이 바로 일본과 괴뢰들을 비

롯하여 저들에게 추종하는 세력들을 끌어들여 조작한 《칩4동맹》이다.

윤석열역적패당은 미국이 주도하는 이 반도체공급망협의체에 가담하는 경우 현재 저들의 반도체수출에서 큰 몫을 차지하는 나라와 지역에로의 수출길이 막히게 되고 해당 나라들의 경제보복을 불러일으켜 가뜩이나 허약한 괴뢰경제가 침체상태에 빠질수 있으나 이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상전이 강요하는대로 《칩4동맹》에 머리를 들이밀었을뿐 아니라 미국이 저들의 비위에 거슬리는 특정한 나라를 배제하고 미국주도의 경제무역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조작한 《인디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라는 다자간 협의체에도 선참으로 가입하였다.

윤석열역도의 이러한 친미사대매국행위로 하여 오늘 괴뢰들은 주변나라들의 강한 견제와 배척을 받고있으며 이것은 경제와 민생을 수습할수 없는 파국적국면에로 몰아가고있다.

미국은 괴뢰경제는 어떻게 되든 아랑곳하지 않고 《경제동맹》이라는 미사려구로 괴뢰들을 유혹하면서 제리속만 채우고있다.

지난 2022년 8월 미국것들은 국내물가를 낮추기 위한 《인플레감축법》을 통과시키고 자국내에서 생산을 하지 않는다는 리유로 그 법에 따르는 보조금지불대상에서 괴뢰산 전기자동차를 제외시키였다. 이 법의 시행으로 괴뢰산 전기자동차들은 보조금을 받는 미국산 전기자동차들과의 가격경쟁에서 밀려나고있다.

결국 미국상전이 자국기업들의 리익만 우선시하면

서 미국에 투자한 괴뢰기업들을 압박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우방》과 《경제동맹》을 부르짖으며 친미사대매국행위에 매달리던 윤석열역적패당은 상전으로부터 뒤통수를 얻어맞는 신세가 되였다.

미국과 윤석열역적패당은 침략전쟁동맹인 《한미동맹》을 우리 공화국을 핵으로 압살하기 위한 《핵전쟁동맹》으로 더욱 개악하고있다.

지난 2023년 4월 미국을 행각한 윤석열역도는 미국상전과 《워싱톤선언》이라는것을 채택하였다.

《워싱톤선언》을 통해 미국은 괴뢰들과 핵억제에 관해 보다 심화되고 협력적인 정책결정을 약속한다고 하면서 핵 및 전략계획을 토의하고 공화국의 그 무슨 《핵위협》을 관리하기 위해 《핵협의그루빠》를 설립한다는것과 유사시 미국이 핵무기작전을 재래식무기를 가진 괴뢰들과 공동으로 계획하고 실행할수 있도록 협력한다는것, 조선반도에서 핵억제적용에 관한 련합교육 및 훈련을 강화해나갈것이라는것, 핵유사시계획에 대한 공동의 접근을 강화하기 위해 모의훈련체계를 도입하기로 약속하였다.

이와 함께 핵미싸일을 탑재한 미전략핵잠수함의 괴뢰지역 기항과 같은 침략무력의 정례적이며 가시적인 전개, 쌍방사이의 공조확대, 기존 《확장억제전략협의체》를 포함한 쌍방간 상설협의체강화와 정보공유, 련합방위태세강화 등을 명시하였다.

《워싱톤선언》은 반공화국핵전쟁공조선언으로서 우리 민족의 머리우에 핵참화를 들씌우려는 미국과 괴뢰역

적패당의 흉악한 기도를 그대로 성문화한것이다.

이것은 미국과 괴뢰역적패당이 공화국을 압살하기 위한 핵전쟁을 기정사실화하고있다는것을 다시한번 똑똑히 보여준다.

세계에서 유일한 핵무기사용국이며 세계최대의 핵무기보유국인 미국과 그에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윤석열역도때문에 조선반도에서 핵전쟁발발의 위험성은 배가되고있다.

하기에 각계층은 《<한국>이 미국의 핵전략자산을 총괄하는 기구인 미전략사령부와 훈련하는것은 <한국>의 전력이 미국의 핵전쟁계획아래 편제되고 사실상 미국의 전력으로 일체화되는것을 의미한다.》, 《<동맹>의 리익을 위해 조선반도를 신랭전의 전쟁터로 무상제공하는 등 미국에게 모든것을 내여주었다.》 등으로 미국의 반공화국핵전쟁책동에 적극 추종하는 윤석열역적패당을 준렬히 단죄규탄하고있다.

하지만 윤석열역도는 민심에 역행하여 《<워싱톤선언>으로 <한미동맹>은 이제 <핵기반동맹>으로 격상됐다.》고 공공연히 줴치면서 미국상전과 반공화국핵전쟁책동에 더욱 피눈이 되여 날뛰고있다.

《한미동맹》의 추악한 《진화》속에서 괴뢰지역은 정치, 외교, 경제, 군사 등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헤여나올수 없는 파국의 심연속에 더욱더 깊숙이 빠져들고있다.

*　　*

미국의 강점으로 시작된 예속과 굴종, 불행과 고통의 가슴아픈 력사는 지난 세기에 이어 오늘도 계속 흐르고있다.

미국의 강점과 괴뢰위정자들의 친미사대매국책동에 의하여 괴뢰지역은 미국의 핵전쟁화약고, 전초기지로 더욱 전락되고 인민들은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 재난을 강요당하고있다.

자주는 막을수 없는 력사의 흐름이며 자주성을 위한 인민들의 투쟁이 승리하는것은 과학이며 진리이다.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 자주적인 새 정치, 새 생활을 위한 인민들의 정의의 투쟁은 년대와 세기를 이어오는 미국의 식민지통치를 끝장내고 반드시 승리할것이며 친미사대매국세력은 력사와 민족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것이다.

예속과 굴종, 치욕의 력사

집 필 오보람
편 성 김일미
장 정 채대성 교 정 안순광

낸 곳 평 양 출 판 사
인쇄소 평 양 인 쇄 공 장
인 쇄 주체112(2023)년 9월 25일
발 행 주체112(2023)년 9월 28일

ㄱ—1613ㄷ

ⓒ Pyongyang Publishing House 2023, DPR Korea
ISBN 978-9946-31-174-6

ISBN 978-9946-31-174-6

9 789946 311746 >